

광 고

원양산업

제 1158 호

(2023년 6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2024 어기 한-나우루 입어 협상 / 4
- 협회장, 주한우루과이대사관 면담 / 5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3년 5월 보고 내용 / 6

■ 요리 만들기

- 고추참치 마요덮밥 / 11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6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상승 / 12

■ 참치어업 동향

- IOTC, FAD 72일 금어기 유지 / 13
- 탄자니아, IOTC FAD 금지 조치 이의 제기 / 13
- IOTC, 눈다랑어 국가별 배분 신설 / 14
- 프 선망어업 대표 "업종 간 충돌이 IOTC 미래 위협" / 15
- 블룸, EU FAD 금지 이의 제기를 중단 요청 / 15
-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부진 지속 / 16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2,050 달러 / 16
- 日, 4월 냉동 참치류 수입 통계 발표 / 17
- 日 4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878 엔 / 18

-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약 1,825 달러 / 18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톤당 1,615 유로 / 19
- 美 상원, 수입 유사 참치종 완전 이력추적 요구 / 19
- 인도네시아, 참다랑어 어획 쿼터 확대 협상 개시 / 20
- 스페인 참치 부문, EU-태국 FTA에 우려 표명 / 20
- 태국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출량, 10년 만의 최저치 / 21
- 대서양에서 포르투갈 눈다랑어 조업 종료 / 21
- 美 참치 통조림 1분기 수입량, 전년 대비 1% 감소 / 22
- 美 1분기 참치 파우치 수입량, 최고치 기록 / 22
- 선망선 연료비, 2023년 들어 최저 수준 / 23
- 올리브유 가격 상승, 이탈리아 참치 통조림에 타격 / 24
- Albo社, 해바라기유 사용 제품 출시 / 24
- 퓨 "일본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선도" / 25
- 투발루, IUU 근절 위하여 Sea Shepherd와 협업 / 25
- FIA PNG, 중서부태평양 MSC 인증 성공 / 26
- 마이크로네시아 선망어업, MSC 인증 취득 임박 / 26
- 가다랑어 MSC에 근접한 TUNACONS / 27
- PNA MSC 인증 확장 시도, 또다시 반발 직면 / 27

■ 오징어어업 동향

- 전문가, 오징어 어업 규제 공백 우려 / 28
- 中 오징어 선단, 라틴아메리카 바다 위협 / 29
- 中, 공해상 자발적 어업 금어기 지속 / 29
- 中 대왕오징어 5월 어획, 저조 추세 지속 / 30
- 中 오징어 선단, 페루 신규 규제에 입항 회피 / 30

Contents

• 페루, 2월 식용 어획량 두 배 증가	/ 31	• 북극 해양생물자원 회의 개최	/ 43
• 페루 수산물 수출, 월 11% 증가	/ 31	• 러, 북대서양 주요 어업 기구 탈퇴 엄포	/ 44
■ 명태어업 동향		• 냉동 수산물 시장, 2033년까지 2배 성장 예상	/ 45
• 러시아, 어획량 증가세 지속	/ 32	• 美 4월 수산물 소매 매출 감소	/ 46
• 2023년 러 해양 생물 자원 어획량, 5백만 톤 초과 예상	/ 32	• 러, 생선 소비 지난 5년간 1.6 배 감소	/ 46
• 러, 서부 베링해 지역에서 조업을 시작	/ 33	• 러, 지난해 우호 국가로 생선 수출 40% 증가	/ 47
• 러, 어획량 200만 톤 돌파	/ 33	• 러 총리 “5월 초 러 인플레이, 유럽 최저 수준”	/ 47
• 러 명태 산업, 재무 상황 악화	/ 34	• 후쿠시마 수산업계, 처리수 방출 평판 문제 대비	/ 48
• 러, 외자 자본 규제 강화	/ 34	• 온난화로 일본의 어획량이 사상 최저치로 감소	/ 48
• 러, 환살 생선 수입 거의 중단	/ 35	• 페로 제도, 러시아 어선에 대한 제한 확대	/ 49
• 러, 어획량 증가 대비 수익 감소문제	/ 35	• 러, EU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한 개정 예정	/ 49
• 명태 재고 가격 폭락 원인	/ 36	• 도브로플로트, 생선 통조림 구성·생산 공정 설명	/ 50
• 러, CFMC에서 전자 로그북 운영 논의 예정	/ 36	• 폴라 씨푸드, 러 자회사 매각 후 820만 달러 손실	/ 50
• 러 명태 어업자, 극동 생선 운송 보조금 인상 요구	/ 37	■ 쉬어가는 난 (시)	
• 연해주, “지역 할당량” 개념 공개	/ 37	• 〈바다9〉 - 정지용	/ 51
• 美 알래스카 명태 어획, A시즌 쿼터에 근접	/ 38	■ 국내 수산 정보	
•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통한 러 국내 시장 어류 선적 지속	/ 38	• 5월 오징어 국내 동향	/ 52
• 알래스카 명태 가격, 약세 지속	/ 39	• 5월 명태 국내 동향	/ 54
• 한국, 러시아산 명태 구매 대폭 감소	/ 39	• 방사능오염 선박평형수, 신속 검사로 유입 차단	/ 56
• 러 수출 및 국내 시장 개발을 위한 전망	/ 40	• IOTC 총회 의장에 해수부 김정례 팀장 재선출	/ 56
• 러, 새 슈퍼 트롤러선 조업 시작	/ 41	•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 열려	/ 57
• 러, 국가 어업 등록부, 완전 디지털화 예정	/ 41	• 연어류 보존 위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개최	/ 57
• 대구, 가격이 저렴한 흰 살 생선과 경쟁	/ 42	• 남극의 꽃, 기후변화로 병들다	/ 58
• 연해주 철송 어류 수출 선적, 연초 이후 2배 감소	/ 42	•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많이 겪어	/ 59
■ 공치어업 동향		• 어한기 물가안정용 정부 비축수산물 즉시 공급	/ 59
• 日 ‘23년 2월 공치 재고 6,554 톤	/ 43	• 해수부, 태도국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 60
■ 각국 수산 동향		• 해수부 차관, 원양산 수산물 수출업체와 소통	/ 60

협회, 2024 어기 한-나우루 입어 협상 일일가격, 전배조건 현행 유지 합의



2024 어기 한국-나우루 간 입어 협상이 지난 6월 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참치선망어업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전무, 동원산업 김병진 상무 외 1명, 사조산업 이경영 부장 외 1명, 신라교역 박정국 차장 외 1명, 협회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 외 2명이 참석하였다. 나우루

측에서는 이사회 의장, 수산청장, 수산청 선임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만찬 및 만찬 서명식에는 Wawani Dowinyogo 나우루 수산부 장관도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 양측은 2024 어기의 일일가격과 전배조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에 이견 없이 합의 하였다.

협회장, 주한우루과이대사관 면담

한-우루과이 어업 협력 지속 및 확대 논의



주한우루과이대사관과 우리 협회 간 면담이 지난 5월 17일 협회 회장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면담에는 우루과이 대사, 영사, 축산농림수산물 국제협력총괄국장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윤명길 회장, 해외협력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외 4명, 업계에서는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우리 측은 우루과이 측에 한국 원양 산업에 있어 우루과이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특히 몬테비데오 항이 지리적 측면에서 갖는 가치를

강조하였다.

우루과이 측은 한국과의 어업 협력 확대에 환영의사를 표명하였다. 우루과이 측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도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어업 관련 기술이 높아 추후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한국-우루과이 어업 협력이 지속되고 확대되기를 요망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5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Ndayane 항구 착공 예정

- 세네갈 Macky Sall 대통령은 Ndayane 항구 프로젝트 착공을 발표하였다.
- 수도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건설될 예정인 신항은 약 11억 3천만 달러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3km 컨테이너 터미널, 300ha 규모의 컨테이너 물, 5km의 해협, 840m 길이와 18m 높이의 부두, 410m 길이의 부두 등 여러 기반시설이 완공 예정이다.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유로/톤)	유종	조사일
다카르	591	경유	'23.5.26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2,000
	1.8~3.4kg	1,950
	1.5~1.8kg	1,800
황다랑어	10kg~	2,150
	3.4~10kg	2,050
	1.8~3.4kg	1,950
눈다랑어	10kg~	2,000
	3.4~10kg	2,000
	1.8~3.4kg	1,950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한국 직항노선 MOU 체결

- 지난 1일 Viliame Gavoka 관광 민간항공부 장관과 김영국 한국국토교통부 항공정책국장은 양국항공사가 코드셰어를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다.
- 현재 피지 국책항공사인 Fiji Airways는 인천공항 취항을 최종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나. 호주, 피지에 예산지원

- 지난 6월 7일 Biman Prasad 피지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Stuart Watts 주 피지 호주 고등판무관 대행은 호주의 8,1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지원에 서명하였다.
- 호주는 지난 3년 동안 2억 9천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피지에 제공되었으며, 이는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피지의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048\$/톤	MGO	'23.6.9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5~1.0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4톤이다.

나. 사모아, NOAA에 보호구역 지정 관련 서한 전달

- 미국참치어선협회(ATA)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국립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호소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 ATA는 아직 폐쇄되지 않은 미국 EEZ의 나머지 지역에서 상업적 어업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안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 ATA 전무이사인 William Gibbons-Fly는 “이전부터 이러한 조치가 누적된 효과는 미국령 사모아에 기반을 둔 참치 선망 선단의 미래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며, 그 결과 미국령 사모아 경제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 ATA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태평양 도서국 주변의 전체 미국 EEZ를 포함하도록 어업 폐쇄를 더욱 확장하여 이 지역에서 미국 관할 수역에서 미국 선단을 완전히 차단한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3.20(gallon)	'23.6.7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황다랑어	라운드	1,700	
눈다랑어	라운드	1,500	
가다랑어	라운드	1,500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Moana, 북섬 연안조업권 인수

- 마오리 소유 수산회사인 Moana NZ가 뉴질랜드 최대 수산회사인 Sanford로부터 북섬의 연안조업권 대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 Sanford는 쿼터 자체는 소유하되, 조업권을 장기간 Moan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Sealord, 베트남 임시 근로자 고용 성공

- Sealord사가 본격적 Hoki 시즌에 앞서 정부 협상을 통해 처리공장에서 근무할 임시근로자 115명을 베트남에서 데리고 오는 데 성공하였다.
- Sealord사는 뉴질랜드 현지 근로자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작년에 700만 달러의 손해를 본 적이 있다.
-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의 점진적 감축 목표를 정부가 세워놓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톤)	유종	조사일
Z	951	MGO	'23.6.7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	단가(\$/톤)	비고
SQUID	2L	5,550	-
	L	5,500	
	M	4,950	
	2M	4,450	
	S	3,700	
	2S	-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

가. 오징어 어업 동향

- 일렉스 오징어 채낚기 어업은 평행선 44° S 북쪽에서 7월 11일까지 21일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 지난 5월부터 “북위 39도, 어획량의 46%가 오징어로 구성되었다” 라고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보고되었으나, 카테고리 2S(32%) 및 3S(14%), 길이가 20cm 미만인 미성숙 치어가 대부분이었다.
- 남쪽에서도 이루어진 어획량에서 같은 그룹의 작은 오징어가 관찰되었다. 전체 어획량의 65%가 2S/3S급에 해당하며, 특히 3S급이 전체 생산량의 37%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두 배 이상인 것으로 관찰된다.
- 평균 사이즈(LMmean = 166 mm; PTmean = 83g)로 인해 단기간 어획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 한편, 6월 12일 시점, 전 채낚기 원양선단이 시속 90km에 달하는 바람과 7미터에 이르는 파도로 인하여 회항하였다.
- 새로 발견한 어장에는 치어가 대부분이나 하루 30톤에 달하는 어획량으로 큰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이번 대피는 큰 상실감을 불러왔다.

나. 中 어선 남극 출몰, 아르헨티나 中 어선 나포 등

- 중국 어선의 남극대륙 출몰로 인해 칠레 해군과 SERNAPESCA(국립 수산양식국)이 경고에 나섰다.
- 칠레 국립 수산양식국이 해군과 함께 남극과 태평양 어장에서 광범위하게 활동 중인 중국 선박 함대의 항해와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나 오징어 자원을 탐색하는 중국선은 약 350척에 달한다.

-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선을 제외한 외국 국적 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매일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아르헨티나 농림수산부는 자국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Lu Rong Yuan Yuan Yu호를 나포, 억류하였다. 중국 어선의 EEZ 침범은 올해 들어 3건에 달하였다.

다. 中 선단 지원 라인 구축, 아르헨 업계 반발

- 아르헨티나 주재 중국상공회에서 추진 중인 중국 선박 입항 허가 및 선박 수리, 하역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 라인 구축 계획이 아르헨티나 원양선박업계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Tierra del Fuego 지방 정부가 중국 자본을 통해 중국 선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항을 건설한다는 계획 또한 도마에 올랐다.

라. INIDEP, 해양 후 변화 영향 평가연구서 발표

- INIDEP(국립해양수산연구원)이 수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아르헨티나 바다의 기후 변화 영향 평가연구 결과, 아르헨티나 역시 이산화탄소의 증가 등의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이 이미 현실로 증명이 되고 있어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었다.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리터)	유종	조사일
EPSOL YPF	1.21	MGO	'23.6.8

바.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	단가	비고
일렉스 오징어	SS (120~200g)	Fob \$2,600	어획량 70% 이상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수산양식개발부, 모든 산업용 어선에 EMS 설치 의무화

- 수산양식개발부 (MoFAD)는 가나의 불법 어업 활동을 점검하고 수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산업용 어선에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EMS) 설치를 시작하였다.
- EMS에는 가나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산업용 트롤 어선 및 참치 선박에 대한 CCTV설치, 원격 센서 사용 및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이 포함된다.
- 세계적인 보호 단체인 네이처 컨서버시(The Nature Conservancy)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가나 어업 회복 활동에 따라 USAID가 자금을 지원하는 이 25만 달러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는 2023년 12월까지 3대의 산업용 트롤선에 초점을 맞춘 후 2024년 1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는 금어기 준수, 어구 규제, 항구 점검, 가나의 수산 자원 관리를 목표로 하는 오피버 프로그램 등의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장관은 프로젝트는 6개월간의 시범 단계 후, 결과는 2025년 12월까지 가나의 EEZ에서 운영되는 모든 허가된 산업용 트롤선과 참치 어선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 가나 등록 어선에 승선조업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

- 가나 해양 당국(GMA)은 2023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법에 따라 해양 커뮤니티, 특히 어선 소유주와 그 대리인, 관리자, 선장과 선원들은 어선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상 승선 업무에 적합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 어선 선원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다른 선원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며, 선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여 선원이 해상에서 복무하는 동안 악화할 우려가 있는 건강 상태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해양 사회는 2023년 9월부터 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5가지 기본 안전 및 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통보받고 있다. 5가지 기본 안전 및 보안 교육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응급 처치
 - 개인 생존 기술
 - 개인 안전 및 사회적 책임
 - 화재 예방 및 화재진압
 - 국제 선박 및 항만 보안(ISPS)
- 어선 소유자와 그 대리인은 선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인증을 받도록 하고 info@ghanamaritime.org를 통해 당국에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GMA의 Tomas K.Alons 국장이 서명 발표하였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kl)	유종	조사일
양상급유	850달러	MGO	'23.5.31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2,500
	~10kg	1,600
가다랑어	3.4kg~	1,650
	1.8kg~	1,600
	~1.8kg	1,450
	~1.5kg	1,300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PNG 해양수산업 동향

- 현재 PNG 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망선 조업료는 PNG 국적선이고 조업된 참치를 국내 공장에서 가공 수출하는 조업선의 경우 일일 6,500 달러, PNG 국적선이나 조업된 참치 전량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조업선의 경우 일일 8,500달러, 조업료를 모두 지불하고 조업하는 외국 국적선의 경우 1만 500 달러 등 차등을 두는 식의 정책을 2023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나. 호주 바닷가재 업자, 한국 방문

- 6월 12일에 호주의 바닷가재 업자들이 중국 수출의 대안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는 호주 수산청에서 자국민 업자의 중국 수출이 막힌 것에 대한 대안의 일부로서 실시되고 있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리터)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8296	Diesel	'23.5.8

〈 게재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고추참치 마요덮밥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고추참치 1캔(100g), 현미밥 1팩(200g), 마늘 3쪽, 양파 1/2개, 홍고추 1개, 계란 2개, 굴소스 1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양파는 슬라이스하고 마늘은 잘게 다져준다. 홍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준비한다.
- ②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마늘→양파→홍고추를 넣고 볶아준다.

③ 양파가 익으면 고추참치 + 굴소스를 넣고 볶아준다.

④ 그릇에 현미밥을 담은 후 계란을 스크램블해 밥 위에 토핑한다.

⑤ 3의 고추참치와 야채 볶음을 위에 토핑한다.

⑥ 마요네즈를 드리즐하여 뿌리고 김가루를 곁들이면 완성된다.

TIP. 굴소스가 없으면 간장 1작은술을 넣어 주고 양파를 충분히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준다.



6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상승

6월 9일 기준 710 달러

6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4.38 달러, WTI 가격은 68.52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73.31 달러를 기록하였다.

6월 9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7,100달러로 5월 9일(682.5 달러) 대비 4% 상승하였다.

6월 평균(6.1~6.9) 가격은 699 달러로 전월 평균(5.1~30) 682 달러 대비 약 2.5% 상승하였다. 전년 6월(6.1~30) 평균과 비교해서는 47% 하락했고, 전전년 7월과 비교해서는 18% 상승하였다.

2023년 평균(1.1~6.9) 가격은 769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26%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32% 상승하였다.

부분별로 유가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석유수급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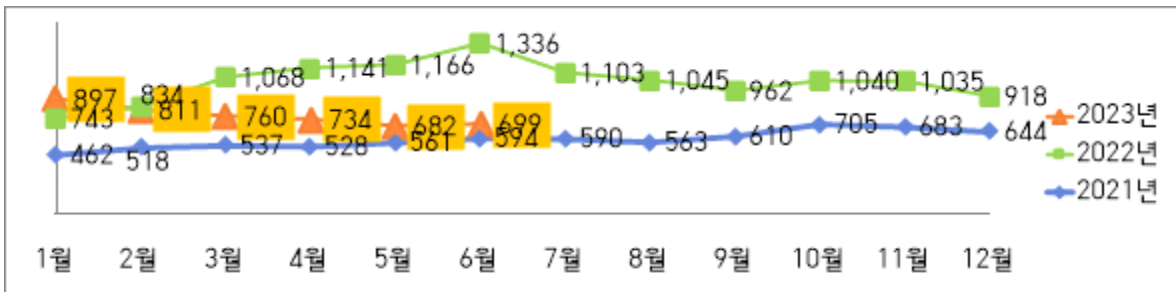
문에서는 OPEC+ 감산체제 연장 및 사우디 7월 중 독자적 추가 감산 발표,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이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OPEC+는 6월 4일 회의에서 감산체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적용되는 생산쿼터를 일부 국가에 대해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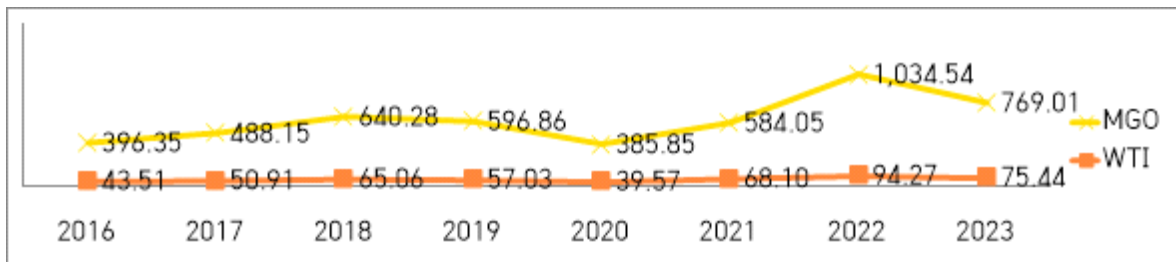
더불어 경제가동률이 전주대비 2.7% 상승하며 95.8%를 기록, 원유재고 감소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 금융부문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상향 조정, 미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 등이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 지정학 부문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이 여전히 유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 월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



〈 연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





IOTC, FAD 72일 금어기 유지

EU-한국 제안 채택 실패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는 몇 가지 결의안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으나, 부유형 FAD(이하, dFAD) 관리 조치에 관한 핵심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EU와 한국의 제안은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72일간의 FAD 금어기 조치는 유지되었다.

회원국은 산업용 선박의 전자모니터링 기준, 눈다랑어 어획량 감축, 바닷새와 해양 포유류 혼획 감축을 위한 조치 등 9가지 안을 채택하였다. IOTC는 또한 황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하여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30일간 황다랑어 금어기를 갖도록 하자는 모리셔스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EU는 dFAD 금지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4가지 제안으로 구성된 FAD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IOTC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EU가 제시한 안은 2024년에 적당 FAD를 280대로 제한하고, 2026년에는 260대,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240대까지 제

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안은 타 회원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일부 연안 국가는 현재의 선박당 FAD 300대 허용치를 2025년까지 200대로 조정하였다.

지난 2월 일부 연안국이 비밀 투표를 통해 채택한 72일간의 dFAD 금지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EU는 과학위원회에 연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안은 한국, 모리셔스 등 과학적 자문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에 반대하는 타 회원국에서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초안, 제안, 토론에도 불구하고 72일간의 dFAD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었다.

EU를 비롯한 FAD 금지 반대 국가들이 이를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으나, IOTC 규정에 따르면 조치가 채택된 후 12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는 해당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15일자

탄자니아, IOTC FAD 금지 조치 이의 제기

“금지 조치에 편향적 관점만이 반영” 주장

탄자니아는 지난 5월 23일, IOTC의 부유형 FAD 72일 금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 조치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스페인 Albacora社 소유 선망선 4척이 탄자니아 국적선이 되는 것이 허용된 이후에 나왔다.

탄자니아는 EU, 세이셸, 모리셔스, 필리핀 등 인도양에서 참치 어획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다

른 국가들과 함께 FAD 금지 조치 반대 대열에 합류하였다. 탄자니아 원양어업국(Deep Sea Fishing Authority)의 Emmanuel Sweke 국장은 해당 조치에서 각각의 업종이 지게 된 부담에 대해 편향적인 관점만이 반영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30일자



IOTC, 눈다랑어 국가별 배분 신설

최근 5년 평균 어획량 기준 산출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제27회 연례회의가 5월 8~12일 모리셔스에서 개최되었다. 작년 연례회의에서 합의된 눈다랑어 관리방식(MP)에서 TAC 및 국가별 쿼터를 계산한 결과, 2024년과 2025년 일본의 쿼터는 3,684톤이 되었다. 이는 최근 5년간(2017~2021년)의 평균 어획량에서 6% 감축된 수치이다.

열대 참치(눈다랑어, 황다랑어)에 최초로 MP를 삽입하기로 결정한 작년에 이어, 올해는 국가별 어획량 신설 또한 합의되었다. IOTC의 눈다랑어는 남방참다랑어와 마찬가지로 TAC가 자동적으로 산출된다.

그 결과, TAC는 8만 583톤이 되었다. 배분은 어획 실적이 높은 국가일수록 감축률이 높으나, 개발도상국에는 일정한 배려가 주어졌다. 수량이 명시된 8개국 및 지역 외에는, 최근 5년간 평균 어획량과 같은

수준의 어획량 유지가 권장되었다. 2026년 이후의 TAC는 신규 자원평가에 따라 갱신된다.

한편, 황다랑어의 경우, 2년으로 채택된 현행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인도, 오만 등 연안 6개국과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의 어획량 또는 2017~2019년 평균 어획량이 5,000톤을 넘어서는 국가가 2014년 수준에서 21% 감축하게 되었다. 일본을 포함한 2,000~5,000톤 수준의 국가는 같은 기간 동안 최대 어획량 이하를 상한으로 하고, 2,000톤 미만의 국가는 2,000톤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조치를 2024년에도 답습하게 되었다. 일본 선단은 4,003톤의 어획량 상한을 이어갔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5월 17일자

구분	어획량 상한(톤)	'17~'21년 평균 어획량(톤)
인도네시아	18,605	21,576
세이셸	11,882	13,382
EU	17,010	20,922
대만	11,488	13,430
스리랑카	4,772	5,170
중국	3,785	3,806
일본	3,684	3,921
이란	2,105	2,280



프, 선망어업 대표 “업종 간 충돌이 IOTC 미래 위협”

“EU 선망어업, 특정 어업 대비 불공정한 대우” 주장

프랑스 선망어업을 대표하는 Orthongel의 Xavier Leduc 회장은 상업적 이해관계로 인한 연안국과 선망어업계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IOTC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IOTC 연례회의 이후, Leduc 회장은 EU 선망 어획량이 인도양 전체 어획량의 30~35%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자망(gillnet) 및 채낚기(pole-and-line) 어업의 환경 영향 및 인권 문제를 강조하였다.

회장은 채낚기 어업의 미끼를 낚는 과정이나 산호초 파괴, 이들 선박의 사회적 조건 등의 문제는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Leduc 회장은 “그들(채낚기 선단)의 어획물의 30%가 히스타민에 오염되어 방콕 통조림 가공공장에서 거부당한다는 사실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라며 “채낚기 선단 어획 참치만으로는 전 세계 인구를 먹일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Leduc 회장은 국제채낚기재단(IPNLF) 및 타 NGO의 EU 선단에 대한 공격은 채낚기 부문의 상업적 이익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IPNLF와 공동 설립자 John Burton은 Atuna에서 선망 어업 견제의 배후로 지목받은 바 있다.

Leduc 회장은 또한 부유형 자망 어업도 유령 어구(Ghost gear, 유실되거나 버려진 어구)가 되어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IOTC에는 자망 선단을 보유하면서도 황다랑어나 날개다랑어 어획량 제한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Leduc 회장은 “과학적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EU) 선단은 100% 옵서버가 승선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산출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17일자

블룸, EU FAD 금지 이의제기를 중단 요청

프랑스 선주 분노

IOTC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프랑스 NGO 블룸(Bloom)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프랑스 해양수산양식총국(DGAMPA)에 72일간 집어 등 사용 금지에 대한 EU의 이의제기에 반대하는 두 건의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NGO는 FAD가 매우 파괴적인 어획 방법이며 최근 EU가 IOTC 조치를 거부한 것은 받아들이 수 없고 공동 수산 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다. 또한 유럽 로비가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상업 어선단에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tuna는 블룸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 선망협회에 문의하였다. 협회장은 “블룸의 이러한 항소는 선망 선단을 약화하고, IOTC의 협상을 약화하려는 노력의 연속이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12일자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부진 지속

4월 8만 652톤 어획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은 전 수역에서 조업 노력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다랑어 어획량은 5개월 연속으로 부진하였다.

4월 열대 참치 어종의 총어획량은 8만 652톤으로 5% 증가하였다. 선단은 태평양 연안국 EEZ 및 공해에서 모두 조업 노력을 늘리고 있다. 4월 전체 조업 노력은 3월의 3,741일 대비 4%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1~4월 동안 선망선단은 총 1만 4,020일의 조업일수제도(이하, VDS)를 사용하였다. 이는 2022년 동일 기간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 선단은 특히 나우루, 마셜제도, 토켈라우 등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중부 및 동부 수역으로 조업을 이동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31%의 조업이 중서부태평양 협약 수역 서쪽의 PNG) 수역에서 이루어졌다.

조업 노력 증가로 인하여 나우루, 마셜제도, 토켈라우에서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 PNG 수역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PNG 수역의 어획량은 약 3만톤을 기록하였다.

일간 선망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 수개월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4월 일간 가다랑어 어획량은 16.5톤으로, 지난 2년을 통틀어 최저 수준에 가깝다.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전년도 11월부터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2022년 4월 일간 어획량은 약 38톤으로, 올해 4월 어획량의 2배 이상이다.

스쿨조업 선망선단은 전월 대비 14% 증가한 1.2톤의 대형 황다랑어를 어획했지만, 소형 및 대형 눈다랑어 어획량은 각각 0.3톤과 0.1톤으로 모두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30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2,050 달러

가격 소폭 상승, 거래량 침체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방콕의 6월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2,050 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형 가공업체는 대량 주문의 경우 70 달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가공업체들은 최근 원어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인도양 어획물을 매입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주요 가공업체가 방콕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였다는 언급도 나왔다.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3월 말부터 톤당 2,000 달

러 이상을 기록 중이다. 이는 아시아 가공업체 및 최종 구매자에게 있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거래가 많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로, 구매자 수요가 매우 낮고 새로운 주문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콕 가공업체들은 시장 침체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최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하여 원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9일자



日, 4월 냉동 참치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냉동 눈다랑어 수입량 513톤

〈 2023년 4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날개다랑어	한국	-	96	99	217
	대만	27	4	281	473
	바누아투	-	1	131	198
	기타	105	42	3	-
	소계	133	144	396	888
황다랑어	한국	173	217	262	92
	중국	54	338	265	304
	대만	1,295	1,668	1,245	1,793
	필리핀	987	245	74	122
	인도네시아	26	94	164	67
	미국	-	-	-	-
	바누아투	56	168	400	251
	피지	16	12	28	-
	키리바시	4	2	13	3
	마셜제도	180	1	197	-
	기타	1,662	692	3,465	1,106
	소계	4,453	3,437	11,209	3,738
눈다랑어	한국	84	136	126	513
	중국	136	373	949	558
	대만	1,717	1,538	2,639	2,852
	인도네시아	1	30	8	8
	세이셸	562	280	137	364
	바누아투	41	309	484	613
	기타	36	82	40	117
	소계	2,578	2,748	4,385	5,026
남방참다랑어	한국	-	132	-	-
	대만	6	10	5	-
	호주	-	-	-	-
	소계	-	-	-	-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5월 9일자



日 4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878 엔 3월 가격과 거의 동등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4월 수입 실적은 선어·냉장 제품 수입량 422톤(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 수입액 8억 9,600만 엔(48% 증가),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9,248톤(28% 감소), 수입액 350억 1,100만 엔(17% 감소), 가공품 수입량 4,997톤(25% 증가), 수입액 39억 200만 엔(44% 증가)이다.

4월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제품 단가는 kg당 870 엔(전년 대비 12% 하락)으로, 3월 가격인 kg당 878 엔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은 3월 가격인 kg당 880 엔과 거의 차이가 없는 kg당 881 엔(전년 대비 11% 감소)을 기록하였다.

한편, 일본 도쿄 도요스시장의 4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의 상장 수는 1만 2,086마리(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이다. 상장 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경태평양산의 증가(中値: 가장 거래량이 많은 가격)는 kg당 1,133 엔(4% 하락)으로, 3월 가격인 kg당 1,174 엔 대비 하락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6월 6일자, 5월 16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약 1,825 달러

여전히 방콕 가격보다 낮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만타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 이상 가격은 톤당 1,825 달러 수준으로, 가장 최근에 보고된 가격(톤당 1,850 달러) 대비 약 1% 하락하였다. 소식통들은 또한 일부 거래가 톤당 1,800 달러 선에서 체결되었고, 일부 제안은 톤당 약 50 달러 높은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였다.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약 1년간 1,800 달러 주변을 오르내리고 있다. 가공업체는 수개월간 가격 하락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대신 이들은 가격이 방콕 수준까지 오르는 것은 저지하였다.

동부태평양 어획량은 좋은 수준으로, 전채량은 증가하였다. 한 주요 가공업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에게 원어를 공급하는 선단은 지난 4월 말 대

비 약 12% 많은 가다랑어를 동부태평양에서 어획하였다. IATTC 데이터에 따르면 동부태평양 어획량은 3월부터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의 가다랑어 어획량 누계는 10만 6,360톤에 달하였다. 이는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대 수준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5월과 6월에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1,850 달러에서 1,800 달러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며, 시장 분위기가 7월 말까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1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톤당 1,615 유로 방콕 가격 상승이 세이셸 가격 상승 이끌어

인도양 참치 어획량이 5월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태국 가공업체들이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가다랑어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다.

세이셸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 이상 가격은 톤당 1,615 유로로, 전월 가격인 톤당 1,600 달러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다랑어 원어 부족을 겪고 있는 태국 가공업체들이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인도양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EU 승인번호가 있는 스페인 또는 세이셸 국적선 어획 원어는 최종 제품을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는 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전망선은 이러한 승인번호가 없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다랑어는 현재 모잠비크 해협을 벗어나 동부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 중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어획량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가공공장들의 수요로 인해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FAD 가다랑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소형 황다랑어 어획량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10kg 이상 황다랑어 가격은 5월 중순 가격인 톤당 2,750 유로 대비 5.5% 감소한 톤당 2,600 유로를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7일자

美 상원, 수입 유사 참치종 완전 이력 추적 요구 SIMP 수정안 일환

미국 상원의원 7인이 공동 서한을 통하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하, NOAA)가 현재 제한적인 상태인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SIMP)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SIMP는 수입 수산물의 약 절반에만 서류화 및 이력추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원의원들은 모든 참치종 및 수산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미국 수산 당국은 지난 수년간 수입이 급증한 유사 참치종인 물치다래(Auxis thazard)와 점다랑어(Euthynnus affinis) 등 여러 어종을

포함하여 SIMP에 적용되는 어종의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상원의원들은 모든 수산물에 대한 어획 정보 서류 및 이력 추적 요건이 없다면, IUU 어획물과 허위 라벨 상품이 계속하여 미국에 유입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016년 채택된 SIMP는 수입업자가 어획부터 미국 시장 진입까지의 주요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0여 종의 수산물에 적용되고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30일자



인도네시아, 참다랑어 어획 쿼터 확대 협상 개시

쿼터 1,023톤에서 1,123톤으로 증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을 억제하기 위해 참다랑어 어획 할당량을 늘리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기구 회원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상과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국제 참치 비즈니스 포럼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말하였다.

연간 참다랑어 어획량을 규제하는 국제 포럼은 남방 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이다.

장관은 이번 협상은 정당한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른 국가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연간 참다랑어 어획 할당량이 6천 톤인 호주의 예를 들었다.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않으면 왜곡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간 불균형은 불법 거래 미 미허가 어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2018~2020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연간 참다랑어 총 허용 어획량은 1,023톤이었다.

그 후 치열한 협상을 통해 2021~2023년 기간 동안 쿼터는 1,123톤으로 증가하였다.

남방 참다랑어(Thunnus maccoyii)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 중 하나이다. 2020년 1월 일본 도쿄 도요스 수산시장에서는 276kg의 참다랑어 한 마리가 170만 달러에 팔렸다.

참다랑어 어업 관리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의 규제를 받으며,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는 참다랑어 자원의 유통 전반에 걸친 관리를 한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비준에 관한 대통령 규정 제109호에 따라 2008년부터 CCSBT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 출처: Antaranews, 2023년 5월 24일자

스페인 참치 부문, EU-태국 FTA에 우려 표명

갈리시아 지역 참치 통조림 사업 타격 우려

EU-태국 간 FTA 협상을 앞두고, Jealsa와 Frinsa 등의 참치 통조림 제조업체가 위치한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의 참치 업계가 우려를 표명하였다.

태국은 24%의 관세로 인하여 EU 시장에서 참치 제품의 활로가 좀처럼 없는 상황이다. Alfonso Rueda 갈리시아 주지사는 FTA가 발효되어 태국

참치 제품이 무관세로 EU 시장에 진입할 경우 갈리시아 참치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응하는 기반'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FTA로 인하여, 스페인 수산가공업자협회(Anfaco-Cecopesca) 등 다른 참치 그룹 또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15일자



태국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출량, 10년 만의 최저치 미국, 이집트 수출량 감소 영향

태국의 2023년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10만 6,96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였다. 1분기 톤당 가격은 573 달러 상승하였고, 총 수출액은 5억 3,37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2년 1분기 수출액은 4억 9,530만 달러로,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은 증가한 셈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의 1분기 세계 시장 수출량은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참치 통조림의 최종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감소하였고, 결국 1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태국산 통조림의 2023년 1분기 미국행 수출량은 1만 8,92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나 감소한 반면, 톤당 가격은 8% 상승한 5,055 달러로 모든 수출 시장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캐

나다 수출량은 4,540톤으로 전년 대비 22%나 감소하였다.

지난 수년간 이집트는 태국 통조림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었으나, 올해 1분기 이집트 수출량은 73%나 급감한 5,461톤에 그쳤다. 이는 이집트의 환율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에 이집트 대신 2위를 차지한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전년 대비 130%나 증가한 1만 2,038톤으로, 톤당 수출 가격이 전년 대비 9%나 상승한 4,601 달러임에도 달성한 성과이다. 리비아, 예멘, 이스라엘 등 타 중동 국가로의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아랍에미리트 수출량은 약 1,800톤 증가한 6,140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30일자

대서양에서 포르투갈 눈다랑어 조업 종료 눈다랑어 쿼터 확보 노력

포르투갈 국적 선박의 대서양 눈다랑어 조업 시즌이 공식적으로 마감되었다. 해당 선박들은 2023년 어획 할당량을 모두 소진하였다.

5월 29일, 포르투갈 천연자원안전해양서비스국(DGRM)은 포르투갈 선박이 어획 할당량을 모두 소진했다고 발표하였다. 선박들은 화요일 오

전 12시부터 눈다랑어 조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5월 30일까지 잡은 어획물은 6월 1일 자정까지 지역 항구에서 하역할 수 있었다.

ICCAT에는 올해 포르투갈에 2,823.84톤의 대서양 눈다랑어 쿼터를 할당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30일자



美 참치 통조림 1분기 수입량, 전년 대비 1% 감소 수입 단가 7% 하락

미국 참치 통조림 수입액은 2023년 1분기에 1억 4,37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량은 3만 4,348톤으로 전년 대비 1%만 감소하였으나, 지난 5년간 최저 수준이다. 톤당 수입 단가는 7% 하락한 4,185 달러로, 지난 5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가격은 FOB (본선 인도조건) 기준으로, 운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대 공급국인 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23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80만 달러 감소하였다. 다만 이는 2021년 대비 약 10%나 감소했던 2022년 1분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2020년 이후, 태국의 1분기 대미 수출량은 감소 추세이다.

멕시코산 참치 통조림의 대미 수출 단가는 톤당 4,318 달러로 18%나 상승하였으나, 수출량은 12% 증가한 4,562톤이었다.

에콰도르산 참치 통조림의 1분기 대미 수출 단가는 전체 수출국 중 가장 높은 톤당 4,610 달러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은 2,457톤으로 전년 대비 74%나 증가하였다.

Wild Planet 브랜드의 날개다랑어 제품을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베트남은 2021년과 2022년에 매우 높은 대미 수출 단가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1분기 수출 단가는 44% 급락한 3,465 달러를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9일자

美 1분기 참치 파우치 수입량, 최고치 기록 전년 1분기 대비 21% 증가

올해 1분기 미국 참치 파우치 수입액은 약 8,585만 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2022년 참치 파우치 수입량은 5만 486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3년 1분기 미국의 참치 파우치 수입량은 전년 1분기 대비 21% 증가한 1만 5,206톤을 기록하였다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5,646 달러로, 전년 1분기 대비 6%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원료 가격 상승 및 포장 비용 증가에 기인한다. 이는 지난 5년간 수입 가격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태국산 파우치의 2023년 1분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13톤 증가한 5,755톤이며, 수입 가격은 약

2% 감소한 톤당 5,097 달러이다.

에콰도르산 파우치 수입액은 공급국 중 가장 비싼 톤당 6,764 달러로, 2022년 1분기와 비교하면 21% 상승하였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산 파우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245톤을 기록하였다. 이 중에는 과야킬 가공공장의 스타키스트 브랜드 제품이 포함되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 산하의 세네갈 공장에서도 판매량 증가를 달성하였다. 미국의 1분기 세네갈산 파우치 수입량은 전년 대비 883톤 증가한 4,238톤이며, 가격은 톤당 5,636달러로 2% 하락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16일자



선망선 연료비, 2023년 들어 최저 수준

싱가포르 MGO 톤당 686.50 달러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선망어업의 해상 연료 비용이 2023년 들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선망선사들은 여러 대양의 어획 부진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5월 16일 시점 국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4.91 달러에서, 서부텍사스유 가격은 25 센트 하락한 70.86 달러에서 마감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이하, IEA)는 최근의 유가 하락이 투자 심리와 긴축된 수요-공급 상황 간의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IEA는 최신 시장 보고서에서 “산업 활동 저하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고,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기존 수요 성장의 하향 전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포함된 OPEC+는 6월 초 비엔나 회의에서 원유 생산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OPEC 2위 산유국인 이라크는 추가 감산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IEA는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일일 20만 배럴 상향된 1억 2,000만 배럴로

조정하였다.

선망선단 해상 가스유 가격은 원유 가격 하락에 반응하고 있다. 5월 16일 시점 글로벌 평균 병커유 가격은 841.50 달러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같은 날 싱가포르 MGO 가격은 톤당 686.50 달러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이 참치 1톤 어획에 드는 연료 비용은 1개월 전 대비 48 달러나 저렴한 평균 446.23 달러가 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20 달러나 하락하였다.

현재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약 2,050 달러 수준으로, 선사가 중서부태평양 항구에서 연료 및 전재 비용을 지불하고 면허 및 정박료, 인건비 등 타 비용을 지불한 후에도 약 1,304 달러가 남게 된다. 2023년 가다랑어 가격과 MGO 가격 차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서부태평양 어황이 좋지 않아 선단의 어획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17일자





올리브유 가격 상승, 이탈리아 참치 통조림에 타격 참치 통조림 마진에 영향 우려

지난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Tuttofood 식품 박람회에 참석한 일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탈리아 올리브유 가격은 작년 말 kg당 4 유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75~5.80 유로까지 상승하였다.

이탈리아의 한 참치 통조림 가공공장 측은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올리브유 가격이 놀라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비용이 빠르게 상승 중이라고 말하였다.

이탈리아 참치 통조림 산업은 올리브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참치 통조림의 약 80%가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박람회의 한 업계 소식통은 지적하였다.

세계 최대 올리브유 생산국인 스페인의 지난 10월~올해 2월 동안의 올리브 수확량은 평년의 50%에 불과하며, 그 결과 올리브유 가격은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Quartz지는 보도하였다.

올리브 오일 가격의 급등으로 이탈리아 통조림 업계는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수익 이윤이 압박을 받으면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스페인 업계 또한 이에 우려하고 있다. 한 스페인 통조림업체 임원은 올리브유 가격이 “이미 kg당 6 유로 정도인데 더 오를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이미 kg당 5.50 유로를 지불 중이다. 일부에서는 6월에 kg당 6.50 유로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소식통들은 상표 계약 문제나 품미 문제, 라벨 표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올리브유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일부에서는 참치 기름 일부를 가스로 대체하는 방식도 모색 중이나, 그럴 경우 80g 통조림의 무게가 15g 감소하게 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5월 18일자

Albo社, 해바라기유 사용 제품 출시 올리브유 가격 급등 원인

올리브유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참치 브랜드 Albo社가 해바라기유 제품으로 영역을 넓혔다.

중국 Shanghai Keichuang社 산하의 Albo社는 최근 해바라기유 참치 통조림 3팩 제품을 출시하였다. 해당 제품은 Salvaterra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

으로, 해당 공장은 신제품을 포함하여 연간 1억 캔을 생산할 계획이다.

올리브유 가격은 2022년 하반기에 급등하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15일자



퓨, “일본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선도”

일본 참치연승어선에 EM 도입

퓨(Pew)는 최근 '일본, 태평양에서 어업 감독을 주도할 태세'라는 기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가 "모범 사례를 옹호하고 정교한 모니터링 기술을 채택하는 등 어업 관리의 지역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연승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EM)을 도입하여 선단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망어업과 달리 옵서버가 100% 승선하지 않는 연승어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일본 연승어선에 서는 이미 EM 시험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험은 폐기물을 포함하여 어획량과 부산물 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집하는 데 유망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EM을 시행하는 일본의 리더십은 RFMO 정책과 국제 수산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

고 이 기사는 말한다.

또한 "어업의 데이터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이 어민들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이 투명성 개선이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 RFMO는 전자 모니터링 표준과 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단을 소유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

이들은 "일본은 특히 기술을 경영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통해 아시아에서 어업 지속가능성의 벤치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수산업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29일자

투발루, IUU 근절 위하여 Sea Shepherd와 협업

해상 순찰 작전 협력 실시

투발루는 해양 보호 NGO인 Sea Shepherd Global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해상 순찰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Sea Shepherd의 해양 보호선인 Allankay호는 해상 순찰에서 투발루의 법 집행을 지원하고 투발루 EEZ에서 범죄 활동을 저지르는 어선에 승선하고, 이들을 검사와,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을 갖게 된다. 투발루 경찰청의 1개 부대가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합동 작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Sea Shepherd Global은 2016년부터 가봉, 탄자니아 등 여러 정부와 협력하여 IUU 및 수산 범죄 혐의로 85척의 선박을 체포한 바 있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5월 19일자



FIA PNG, 중서부태평양 MSC 인증 성공

중서부태평양 전체 스쿨조업 및 FAD 어업 인증 취득

파푸아뉴기니아어업협회(이하, FIA PNG)가 PNG 수역 및 공해를 포함하는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 인증 범위 확장안 통과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해당 어업은 중서부태평양 전체의 스쿨조업 및 FAD 조업에 대한 MSC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어업이 FAD 어업 및 눈다랑어 어업 인증 범위 확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결과이다.

해당 어업의 선단은 PNG EEZ 및 군도 수역(Archipelagic Waters) 내에서 조업하는 55척의 선망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합성평가기관(이하, CAB)은 키리바시, 토켈라우, 투발루, 솔로몬제도,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PNA 국가 영해 및 공해로의 인증 확장을 권고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FIA PNG는 MSC 인증에 따라 황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 등 75만톤의 원어를 공급하는 최대의 참치 공급원이 되었다. 이러한 양은 중서부태평양 열대 참치 선단 중 최대이다. FIA 선단은 2022년 약 13만 1,000톤을 어획하였다.

흥미롭게도, PNG는 수년간 어획량 및 선단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MSC 어업국이었다. 이들은 또한 2011년 참치 어업 최초로 MSC 인증을 취득한 어업이기도 하다. PNA는 지난 2월 FAD 어구 및 눈다랑어에 대한 인증 확대를 추진한 바 있으나 이의제기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PNA의 인증 확장 초안보고서에는 이의제기가 있으나, FIA 어업의 인증 확장에는 어떠한 이의도 접수되지 않았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23일자

마이크로네시아 선망어업, MSC 인증 취득 임박

전체 PNA EEZ 대상

키리바시, 마셜 제도, 나우루, 팔라우, PNG, 솔로몬 제도, 투발루, 토켈라우의 EEZ에서 스쿨조업 및 FAD 조업에 대한 범위 확대를 요청한 마이크로네시아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선망어업이 MSC 인증에 가까워지고 있다.

고객 그룹은 Lianchen Overseas Fishery(FSM) 社, Caroline 社, Da Yang Seafood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어업은 2021년부터 MSC 인증을 받았지만 6척의 선박으로 마이크로네시아 수역과 WCPO 공해수역에서만 조업하였다. 작년 9월에 모든 PNA EEZ에서 스쿨조업 및 FAD 조업을 포함하도록 확장 요청하여 6척의 선박이 추가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24일자



가다랑어 MSC에 근접한 TUNACONS 에코FAD 대규모 시험 중...100% 도입은 시기상조

TUNACONS의 회원사인 Eurofish, NIRSA, Servigrup, Tri Marine, Jadran은 EPO에서 60척의 선망어선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 이 그룹은 가다랑어 13만톤, 황다랑어 2만 5,000톤, 참다랑어 1만 3,000톤을 어획하였으며, 부수어획량은 1.0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다랑어 자원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전 시도에서 실패한 적이 있었으나, 작년에 IATTC 자원평가에서 EPO 참치에 대한 청신호가 커지면서 TUNACONS는 다시 한번 MSC 블루 로고에 도전하게 되었다.

TUNACONS는 2020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자사 선박이 에코FAD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기존 FAD의 20%를 에코FAD로 교체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TUNACONS의 선망어선들은 7,728톤의 참치를 에코FAD로 어획했으며, 이는 세트당 평균 45톤에 달한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 선박들은 3,840개의 생분해성 에코FAD를 테스트하였다.

TUNACONS 전무이사는 왜 아직 100%의 선단이 생분해성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생분해성 FAD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많은 투자가 필요했고, 해상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6년간의 연구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적응해야 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테스트 2년 차에 접어든 현재 전체 FAD 중 20%의 에코FAD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23일자

PNA MSC 인증 확장 시도, 또다시 반발 직면 CTTT 등 다수 단체, 반대 표명

지난 3월,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어업은 눈다랑어 어업 및 FAD 어업에 대한 MSC 인증 취득에 재도전하였으나, 투명한참치어업연합(이하, CTTF) 등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이들은 이전에도 CTTF의 반대로 인증 확장이 무산되었다.

현재 CTTF, 국제지속가능수산물기금(이하, ISSF), Sharkproject 3개 단체가 PNA 인증 확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CTTF는 어획통제규칙(이하, HCR) 및 ETP종(멸종위기, 멸종우려종, 보호종) 관련 지표의 점수에 대해 2020년에 이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였다. CTTF는 WCPFC가 개발한 최신 가다랑어 HCR이 MSC 표준에 대해 정식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또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한 HCR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24일자



전문가, 오징어 어업 규제 공백 우려

급격한 어업 확대로 인해 자원 문제 우려

아메리카대왕오징어 어업이 규제 공백 속에서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자원 상태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오징어 개체수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과학자들은 최근 비규제 어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원이 위협에 처했다고 말하였다.

지난 3월 Science Advances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징어 어업은 현재 공해상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장 중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전 세계 오징어 어선의 조업 일수는 2017년 연간 14만 9,000일에서 2020년 25만 1,000일로 68% 증가하였다.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의 해양정책 전문가 Katherine Seto가 주도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오징어 조업의 86%가 비규제 수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92%가 중국 선단에 의한 조업이다. Seto는 "어획 노력, 어선 증가, 조업 시간 증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공해 오징어 자원은 규제가 없다. 남동태평양과 북서 태평양, 남서 대서양, 북서 인도양 등 4개 해역이 오징어와 관련하여 특히 우려되는 지역이다.

매달 수천톤의 대왕오징어가 잡히는 남동부태평양의 어획량은 전세계 오징어 어획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지만, 최근 수년간 어선의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포클랜드 수산청 수석 수산과학자 Alexander Arkhipkin은 지난 2~3년 간 자원이 감

소하기 시작하였다는 징후가 있으며, 대규모 산업 선단이 북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빨강오징어(*Ommastrephes bartramii*)에서도 CPUE 급감 추세가 관측된다고 말하였다.

인도 북서부에서도 오징어 어업이 RFMO의 부재 속에서 확대되고 있다. 국제 비영리단체 TMT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오징어 어업은 2017~2020년 조사 기간 동안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의 대부분은 중국 선단으로 2017년 17척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279척으로 증가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어, 남태평양에서는 RFMO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CPUE가 급감하였다. 대왕오징어가 어획되는 남태평양 공해를 관리하는 SPRFMO의 가장 최근 회의인 2023년 2월 회의에서는 2028년까지 옵서버 승선 및 오징어 TAC 도입 등의 여러 제안이 제시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선제적 어획능력 제한이라는 엄격한 조치가 통과되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rkhipkin은 자원량이 적은 해에 어획 압박이 강해지면 개체수가 적은 오징어류는 자원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Arkhipkin은 오징어 자원이 실제로 붕괴할 수 있다는 증거로 캐나다와 미국 동부 연안의 일렉스오징어(*Illex illecebrosus*)를 예로 들었다. Arkhipkin은 70~80년대 동안 심각한 남획을 겪은 해당 어업이 80년대 후반 어획 압력과 해양 악조건이 겹치면서 개체수가 급감해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출처: ChinaDialogueOcean, 2023년 5월 23일자



中 오징어 선단, 라틴아메리카 바다 위협

일렉스오징어 약 60만~80만톤 IUU 어획

‘떠다니는 도시(floating cities)’로 불리는 대규모 선단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해양보호 및 불법어업 전문가 Milko Schwartzman 연구원은 이 선단의 불빛이 마치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도시처럼 보이기에 그렇게 불리고 있으며, 심지어 우주에서 볼 때 페루의 리마보다도 더욱 밝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선단은 약 600척의 선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80%가 중국 국적선이다.

칠레 TV 방송국 T13에 따르면 이들 선단의 수는 지난 20년간 3배로 증가하였다.

이 선단은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산호르헤 만과 아르헨티나 추부트, 산타크루즈 주 동쪽에 위치한 약 6,600 km² 면적의 '대서양 블루홀'에서 조업을 한다고 아르헨

티나 국립 킬메스 대학교의 과학 통신사가 보도하였다.

Schwartzman 연구원은 이곳의 해저는 약 300에서 800미터로 갑자기 깊어지며, 이러한 수심 및 난류, 한류 등의 요인으로 해양 생산성과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바로 이러한 풍요로움 때문에 중국 선단은 온갖 규제를 피해 해당 수역에 장기간 머문다. 중국은 연료 공급, 선박 건조 비용의 50% 지원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선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Schwartzman 연구원은 남서대서양에서만 매년 60만~80만톤의 일렉스오징어가 IUU 어획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아르헨티나가 매년 약 15만톤의 일렉스오징어를 합법 어획함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라고 말하였다.

* 출처: Dialogo Americas, 2023년 6월 6일자

中, 공해상 자발적 어업 금어기 지속

7~9월 남서대서양북인도양, 9~11월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6월 6일 4년 연속으로 일부 공해상에서 자발적 금어기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남서대서양 및 북인도양 공해 일부에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동부 태평양 공해 일부에서 자발적 금어기가 시행된다.

농업농촌부 측은 해당 기간 동안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트롤선을 포함한 모든 중국 원양선단은 특정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0년부터 매년 약 70개 원양선사와 700여 척의 오징어채낚기선 및 트롤선의 공해 어업 수역에서 자발적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농촌부 측은 이전 금어기 동안 불법 조업 활동은 보고되지 않았고, 연구 결과 금어기 시행 수역에서 오징어 어획물 평균 크기 및 척당 평균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Xinhua.net, 2023년 6월 8일자



中 대왕오징어 5월 어획, 저조 추세 지속

중국 내 가격 급등

중국 선단의 소형 아메리카대왕오징어 어업이 지난 달에 이어 계속해서 저조하다. 일본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전년도 5월에는 척당 1일 평균 어획량이 6톤 정도였으나 올해는 1~2톤 수준이며, 조업척수 또한 감소하고 있다.

5월 중순 시점 중국 국내에서의 원료 가격은 마리당 500g 이하가 톤당 1만 4,200~1만 4,400 위안(전년 동기 대비 50~60% 상승), 어획의 중심을 이루는 500g~1kg가 톤당 1만 3,500~1만 3,700 위안(80~90% 상승)을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어업 또한 어획량 부진 추세이다.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대체 원료인 대왕오징어의 수요가 높아졌고, 특히 소형 사이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페루에서의 대왕오징어 어획량도 저조하여, 상사 소식통은 “재고가 적은 중국 측의 매입 의욕이 강하다.”라고 전하였다. 칠레 측 어획은 순조로우나, 연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원료 가격도 상승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어업은 자원 보호를 위하여 5월 29일까지 금어기가 이어졌으며 6월부터 제4항해가 시작되었다. 소식통은 “어획 부진이 계속되고, 출어는 절반 이하인 30척”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3월 냉동 오징어류(남미 대왕오징어, 일렉스오징어 등 포함)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5,118톤, 평균 단가는 43% 상승한 kg당 686 엔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5월 24일자

中 오징어 선단, 페루 신규 규제로 입항 회피

페루 입항 없이 中 귀향 추세

페루는 2020년부터 페루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어선에 대해 24시간 추적이 가능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페루 어업 컨설팅기업 Artisonal社에 따르면, 이는 중국 선단이 페루 입항을 회피하고 외국인 선원을 해상에 더욱 오래 머물게 하는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태평양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671척의 중국 선박 중 3척만이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였다.

한편, 중국 선박이 정비, 선원 교대, 재보급을 위하여 페루에 입항하는 횟수는 2019년 300건 이상이었으나 2022년에는 21건으로 급감하였다. 일부 중국 선박은 어업 시즌 사이에 중국 귀향을 택한 것으로 관측되며, 다른 선박들은 칠레의 폰타아레나스에 입항하였다.

Artisonal社에 따르면 규제 이전까지 중국 선단은 평균 10~12개월을 바다에서 보냈으나, 현재는 중국 귀향 이전까지 18~24개월을 보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6월 9일자



페루, 2월 식용 어획량 두 배 증가 전년 동월 대비 어획량 88%, 금액으로는 9% 증가

페루 생산부에 따르면 페루의 수산업 부문 어획량은 2월에 2억 9,380만 페소(7,930만 달러)에 해당하는 28만 6,600톤으로 전년 대비 물량 기준 88%, 금액 기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에 따르면 이는 사람이 직접 소비하는 원료(DHC)의 어획량이 119.7% 증가하여 2022년 2월 10만 7,800톤 252억 페소에서 23만 6,700톤 275.1억 페소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DHC의 총어획량 중 약 71.3%가 냉동 생선 제품 제조에 활용되었으며, 신선(17.2%), 통조림(10.1%) 및 경화(1.3%) 제품 제조가 그 뒤를 이었다고 생산부는 밝혔다.

냉동 수산물 제조용 어획량은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228.2% 증가한 16만 8,800톤을 기록했다.

이는 오징어 어획량 증가(2022년 2월 1만 7,000톤에서 전년 동기 9만 7,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8.8%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3,600톤에서 1,700톤으로 53.3% 감소하였다. 신선 소비용 어획량도 전갱이(23.2%)와 가다랑어(16.7%)의 어획량이 많이 증가하여 2월에 9.4% 증가한 4만 800톤을 기록하였다. 멸치, 가다랑어, 고등어 어획량은 각각 28.3%, 3%, 59.5% 감소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5월 9일자

페루 수산물 수출, 월 11% 증가 냉동 오징어와 새우 판매 호황

페루 생산부에 따르면 페루는 3월에 5억 8,230만 달러 상당의 수산물 약 27만 9,700톤을 수출했으며, 전년 대비 물량은 11.4%, 금액은 8.4% 증가하였다.

이중 사람이 직접 소비하는(DHC) 수산물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3%, 금액은 45.7% 각각 증가한 11만 7,500톤, 2억 5,980만 달러에 달한 것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페루의 3월 DHC 수산물 수출량 중 92.8%는 냉동, 5.6%는 통조림, 나머지(1.6%)는 경화 제품이다.

생산부는 "냉동 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162.1%,

51.6% 증가한 10만 9,900톤, 2억 4,110만 달러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오징어와 새우 판매는 각각 128.2만 달러와 30.1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냉동 제품 전체 매출의 38.9%가 중국(9,370만 달러)으로, 한국(12.5%, 3,020만 달러), 스페인(9.8%), 미국(9.6%), 태국(3.9%), 일본(3.2%)이 그 뒤를 이었다.

3월 통조림 제품 수출은 참치 판매량 감소로 인해 물량 및 금액이 36%, 27.8% 감소한 1,100톤, 4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5월 31일자



러시아, 어획량 증가세 지속

5월 12일까지 188만 톤 어획...작년보다 6.1% 증가

명태 어업은 지난해 동기기간보다 7만 100톤 증가한 100만 톤 이상을 어획하였다. 극동 수역의 청어 어획량은 1만 600톤 증가한 22만 7,400톤, 가자미는 4,200톤 증가한 26.8천 톤을 기록하였다. 대구 어획량은 5만 6,400톤에 달했다.

5월 10일 현재 연해주 어류 냉동고의 적재량은 23.9%이다. 터미널에는 3만 400톤의 신선 냉동 수산물 있다.

북부 수역에서 17만 5,500톤을 어획하였다. 이중 대구는 10만 1,100톤, 해덕 3만 2,800톤(전년 대비 4,400톤 증가), 카펠린 2만 3,000톤(전년 대비 400톤 증가)이 어획되었다.

서부 수역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4% 증가하여 4

만 3,800톤에 달하였다. 청어는 2만 8,800톤(전년 대비 2,100톤 증가), 발트해 청어 1만 3,100톤(전년 대비 600톤 증가)을 어획하였다.

볼가-카스피해 수역에서는 3만 9,800톤이 어획되었으며 이는 작년보다 21.4% 더 많은 양이다. 이 중 2만 4,600톤의 청어류(전년 대비 6,600톤 증가)가 포함되었다.

아조프-흑해 수역의 어획량은 1만 1,500톤이었고 이중 8,500톤은 멸치류였다.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 수역에서 러시아 어선은 총 17만 9,200톤을 어획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17.2% 더 많은 양이다.

* 출처: Fishnews, 2023년 5월 15일자

2023년 러 해양 생물 자원 어획량, 5백만 톤 초과 예상

중국 명태 소비량 증가 가능

러시아의 수생 생물 자원 어획량은 올해 5백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러시아연방 수산청 부청장은 표명하였다.

"우리는 이제 지난해보다 총 10만톤을 더 어획하였다. 작년에 우리는 5백만 톤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5백만 톤의 어획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최종 결과에 대해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예측은 긍정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2023년 어

업이 좋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5백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부청장은 말하였다.

부청장은 올해 명태 조업과 카스피해 호황에 따라 긍정적인 예측이 있다고 하였다.

수산청에 따르면 2022년 어획량은 490만 톤으로 2021년 대비 3% 감소하였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23일자



러, 서부 베링해 지역에서 조업을 시작

총허용어획량은 지난 15년 동안 최대치인 61만 2,000톤

명태어업협회에 따르면 쿼터의 85~90%까지 소진할 수 있다고 한다.

"서부 베링해수역은 러시아 어민들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어획 수역이다. 이 지역의 TAC는 러시아 현대사에 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라고 협회장이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5~8월에는 50여 척의 대형 선박을 포함한 90여 척의 어선이 서부 베링해 수역의 명태를 조업할 예정이다. 서베링해수역은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외국 선단도 조업한다.

수산 과학 기관에 따르면 여름에서 가을까지 조업 기간 동안 베링해의 기상 조건이 연평균과 일치하며 명태 이동 양과 강도도 같을 것으로 예측한다.

조업시 어업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을 위해 명태협회 회원사 선박에 8~10명의 과학 옵서버가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러시아 명태 어업은 작년 수치보다 앞서고 있다. 2023년 첫 4개월 동안 극동 수역의 모든 어장에서 100만 톤 이상의 명태가 어획되었으며, 이는 2022년보다 8만 3천 톤 또는 9% 증가한 수치이다."라고 명태협회장은 말하였다.

그는 또한 연초에 베링해의 명태 어획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많은 2만 4천 톤에 달했다고 언급하였다. 이 지역의 TAC 증가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명태협회는 생산량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필렛 생산량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서부 베링해 지역에서는 45만 5,800톤의 명태가 생산되었다(TAC의 89.5%). 이 중 30만 5,000톤 이상이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되었다.

* 출처: Fishnews, 2023년 5월 16일자

러, 어획량 200만 톤 돌파

전년 대비 5.5% 증가

5월 24일까지 국내 전체 사용자의 수생 생물 자원 어획량은 202만 톤이다. 이는 전년도 수준보다 5.5% 증가한 수치라고 러연방수산청은 보도하였다.

총 어획량에 대한 주요 기여는 전통적으로 극동 지역의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5월 24일 현재 연해주 어류 냉동고의 총 적재량은 23.4%이다. 터미널에는 2만 8,600톤의 신선 냉동 수산물이 저장되어 있다.

1만 7,900톤의 수산물을 적재 한 26 척의 선박이 이 지역의 항구에 접근하고 있다. 어획물은 주로 명태, 청어 및 대구의 신선 냉동 어획물이다.

* 출처: Fishery.ru, 2023년 5월 10일자



러 명태 산업, 재무 상황 악화

비용 증가 및 어선 투자 압박 등 원인

러시아 어업의 핵심 부문인 명태 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수산청이 발표한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의 어업, 양식, 가공 종사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7억 루블로 성장하였다. 반면, 세전이익은 0.5% 이상 감소한 3,000만~5,000만 루블을 기록하였다.

명태는 러시아 어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명태 자원은 증가 추세이며, 자원 평가도 우수한 편이다. 2024년의 TAC는 전년도 대비 약 20만톤 증가한 228만 5,000톤으로 권고되었다. 2022년 극동 수역 명태 어획량은 약 190만톤으로, TAC 소화율은 약 9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원 상황과는 달리, 명태는 시장 축소 및 물류비 급등에 시달리고 있다. 명태 필렛의 주요 판매처인 유럽의 2022년 명태 시장 규모는 약 24만 7,000톤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생산이 정체되었던 중국 가공 시장은 2022년 부활하여 러시아산 명태 55만 6,000톤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어업 매출액의 증가분은 물류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상쇄되었다.

러시아산 명태 H&G(머리, 내장 제거)를 원료로 하는 유럽 가공 필렛의 유럽행 물류비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하여 3배에서 3.5배까지 상승하였다. 중국 수출의 경우,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한 소득 등의 비용이 약 25~30% 증가하였다. 여기에 환율 등도 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투자 쿼터 할당에 따른 어선 건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나, 이로 인한 채무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투자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450억 루블이나, 2022년에는 1,400억 루블에 달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5월 25일자

러, 외국자본 규제 강화

TAC 35% 이상 사용 시 정부 승인 필요

러시아 정부는 4월 29일자로 외국인에 의한 러시아 어업자원의 이용 규칙을 갱신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해외 기업 또는 그룹이 일정한 수역에서 특정 수생 생물의 TAC를 35% 이상 이용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는 2022년 10월 외국인 자본 참가 규제를 개정하여, 어로를 비롯하여 가공, 운송, 보관 등 어업 관련 모든 활동의 외국인 자본 참가를 완전 사전승인제도로 한 바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5월 16일자



러, 흰살 생선 수입 거의 중단

명태 제품 수입 대체로 130배 감소

2023년 1분기 흰살 생선 필렛의 총수입량은 40% 감소하였다. 이는 수요 감소와 자국산 생선의 공급 증가로 전문가들은 생각한다.

Defa Group社이 앞서 추정한 대로 올해 첫 3개월 동안 러시아로 수입된 흰살 생선 필렛(틸라피아, 명태, 대구, 판가시우스 및 넙치)은 3천 톤을 넘지 않았다. 특히 틸라피아 수입은 41%, 판가시우스는 50% 감소했지만 전년 동 기간 대비 출하량은 증가하였다. 대구 필렛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줄어 300톤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러시아는 명태 제품 수입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여 그 전년도 18만 3,000톤 수입에 비해 158톤만 수입하였다. 2014년 이후 명태 제품 수입은 거의 130배 감소했다고 명태어업협회(ADM)의 회장은 말하였다. 명태어업협회장은 2023년 1분기

에 국내 시장에 대한 명태 공급량을 7만 1,000톤(모든 유형의 제품)으로 추정한다.

러연방수산청에 따르면 명태 어획량은 거의 2백만 톤에 달하였다. 러시아 어민들은 북태평양에서 명태의 절반 이상의 쿼터를 어획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체 어획량의 55%인 19만 톤으로 역사적 최대치에 도달하였다. 연안 공장은 23만 6,000톤의 명태를 처리하였다. 농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생산 총 자급 수준은 15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 러시아 어업기업가 및 수출업자 협회(VARPE)의 회장은 지난해 흰살 생선 필렛 공급량이 140.3% 증가한 2만 6,500톤으로 증가했기에, 2023년 1분기 수입 감소는 도매 재고가 증가하고 수요가 다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였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11일자

러, 어획량 증가 대비 수익 감소문제

어획량 증가 대비 수익 감소

러 명태생산자 회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어획 지표가 좋고, 어획량이 역사적인 수준이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활발하다. 또한 조업선이 2022년에 8척 증가하였다.

지난해 육상 공장에서는 35만 6,000톤의 생물 자원을 처리했으며, 그중 명태가 23만 6,000톤을 차지하였다.

협회장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아주 좋지는 않다

고 말하였다. 작년에 어획량은 8% 증가했지만, 이익은 38% 감소하였다. 2019년 순이익은 36%, 2020년은 28%, 2021년은 37%, 작년에는 21%에 불과하였다. 즉, 2022년은 중국 시장이 폐쇄되고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던 2020년보다 수익이 더 나뉘었던 해였다. 2020년보다 수익이 더 나뉘었던 해였다.

* 출처: Fishery.ru, 2023년 5월 10일자



명태 재고 가격 폭락 원인

재고 누적 및 수요 감소 영향

러시아 명태 가격은 지난 1년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둔화와 중국의 갑작스러운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상당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소비자들은 지난 10~12개월 동안 치솟는 식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태 제품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수요가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H&G 재고가 발생한 것도 공급 과잉을 가중시켰다.

중국의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해제되자 가공업체들은 밀린 주문량을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일했다. 이렇게 재고가 쌓인 탓에 몇몇 원자재 계약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요 흰살 생선 어업업체의 한 임원은 말하였다.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요 감소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냉동식품의 일부 인플레이션이 약 40~60%에 달하는 등 높은 물가로 인해 소매업의 전반적인 수요가 20% 정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독일에서는 개인 상표가 붙은 450그램짜리 생선 핑거 팩의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약 1.99유로(2.20달러)에서 3.19유로(3.40달러)로 인상되었다.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분명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수요가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격 하락은 올해 운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것이지만 시장 상황으로 인해 가격은 거의 확실하게 더 하락할 예정이다.

지난해 러시아산은 톤당 약 4,000달러에서 4,500달러에 판매되었다. 올해 선상 냉동 PBO 필렛 블록 가격은 톤당 3,900달러에 가깝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3,700달러 정도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5월 30일자

러, CFMC에서 전자 로그북 운영 논의 예정

5월 31일 논의 예정

어업 및 통신 모니터링시스템센터(CFMC)는 2023년 5월 31일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자조업일지 운영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정으로 인해 조업일지가 충분히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자허가 처리 직후에 조업일지에 반

영해야 한다. 지금은 12~24시간이 걸린다.

관련 법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까지 전자 및 종이 일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선원과 개발자는 전자조업일지 운영 불편사항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해야 한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24일자



러 명태 어업자, 극동 생선 운송 보조금 인상 요구

한여름부터 관세 15~30% 인상 예정

러시아 명태 생산자 협회는 러시아 부총리에게 극동에서 러시아 중부 지역으로의 명태 운송을 위한 철도 요금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냉동 명태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은 팬데믹 제한으로 인한 중국으로의 수출 문제로 인해 2021년에 시작되었다. 현재 운송비는 kg당 20루블이며, 이는 최종 가격의 20~25%에 해당한다. 보조금은 이 비용을 6루블까지 줄여준다.

올해 1분기에는 7만 1,000톤의 명태가 시장에 공급되었으며 이는 연간 예상량(20만톤)의 3분의 1

이상이다. 그러나 한여름부터 냉동·냉장 컨테이너 운송 관세가 15~30% 인상 예정이다.

전러시아어민생산자협회(VARPE)의 회장은 어민을 돕기 위해 할당된 자금이 4월 중순에 소진되어 연말까지 7만 톤의 제품을 추가 공급하려면 5억 루블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까지는 어민들이 직접 운송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자금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선을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 상황은 2022년 중반에도 발생하였다.

* 출처: Fishnet, 2023년 6월 2일자

연해주, "지역 할당량" 개념 공개

지역 주민에게 의무 판매 필요

"어업분야에서 기업 통합이 진행하고 있다. 연안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어종에 대한 쿼터는 주요 회사 그룹에 집중되어 있으며, 거의 전적으로 수출용이다."라고 러시아 연방수산청은 말하였다.

수산청에 따르면 연해주에는 95개의 선주와 65개의 회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15개 회사만이 명태, 대구, 청어에 대한 산업 및 연안 어업 쿼터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총허용어획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쿼터 기반이 아닌 현장에서 작업한다.

수산청은 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민간 기업가를

위해 명태, 대구 및 태평양 청어 어획량에 대한 지역 할당량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 할당량"을 부여하는 조건 중 하나는 할당량이 설정된 지역의 인구에게 해당 할당량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수산청은 말하였다.

지역 할당량은 해당 지역의 인구와 해당 지역과 인접한 조업 구역의 수산 생물 자원 총허용어획량에 따라 설정하되, 대상별 TAC의 5~7%를 넘지 않도록 제안되었다.

* 출처: Fishnews, 2023년 5월 11일자



美 알래스카 명태 어획, A시즌 쿼터에 근접

5월 18일 시점 약 54만톤 어획

미국 알래스카 베링해 명태 어업이 A시즌 쿼터에 거의 도달하였다고 알래스카 라디오 방송국 KYUK가 보도하였다.

1월 20일 알래스카 명태 어기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약 54만 4,311톤이 어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명태 쿼터에 도달하기까지 약 1만 9,504톤만이 남은 셈이다.

2023년 미국 명태 TAC가 16%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전세계 명태 공급량은 380만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최고 수준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하, NOAA)의 수산 전문

가 Krista Milani는 베링해의 명태 수가 놀랄 만한 수준이며, 2021년의 일시적인 급감 후 2023년 A시즌 어획량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미국 명태 A시즌은 6월 10일 종료된다. 명태 B시즌은 같은 날 시작되어 10월까지 이어진다.

미국 명태 필렛과 연육(surimi) 가격은 2022년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한 후 현재 급격히 하락했으나, 러시아 부문의 가격은 더욱 가파른 하락세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해졌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5월 18일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통한 러 국내 시장으로의 어류 선적 지속

24시간 내내 생선 선적 및 운반이 이루어짐

러시아 극동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어획된 3,600톤의 생선이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터미널로 선적되었다고 연해주 농어업감독이 발표하였다.

5월 22일 현재 연해주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의 총 이용률은 23.4%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산 터미널에는 2만 8,600톤의 수산물이 있다. 일주일 전 어항 터미널의 적재 수준은 24.3%였다.

어업 및 통신타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르면 5월 20일 현재 연해주 항구 접근로에는 1만 7,900톤의 수산물을 적재 한 26척의 선박이 있다.

러연방수산청에 따르면 극동 지역의 총 어획량은 150만 톤으로 작년보다 6.6% 증가하였다. 106만 톤 이상의 명태, 6만 2,600톤의 대구, 23만 3,800톤의 청어, 러시아 국내 및 해외에서 140톤 이상의 기타 생물자원이 어획되었다.

러시아 철도 극동지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 4월에 연해주에서 25만 600톤의 수산물이 철도로 운송되었다(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 컨테이너로 운송된 수산물은 16만 7,900톤(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이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25일자



알래스카 명태 가격, 약세 지속

유럽의 알래스카 명태 재고 증가, 원인 지목

알래스카 명태 글로벌 시장은 2022년 기록적 가격 이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자국 시장의 미국산 PBO(가시 제거) 필렛 블록에 대한 수요는 톤당 약 5,000 달러로 최고치를 유지 중이나, 유럽 가격은 톤당 4,200~4,700 달러 사이로 다소 약세를 보인다.

해당 관계자는 작년부터 수요가 약화하였으나 전반적 수요는 여전히 2019년보다 높으며, 단기적 재고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조정이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아주 강력한 시장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3월 보스턴 수산물 박람회가 열렸을 당시 미국의 주요 퀵서비스 레스토랑은 국내 수요 급증에 맞춰 명태 필렛 블록을 대부분 확보했지만, 유럽의 기업들은 러시아가 더 낮은 가격에 PBO 필렛 블록 계약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망 상태를 유지하였다.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더 이상 '하나의 가격'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명태 경영진은 물량과 거래 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알래스카 명태 가공공장의 또 다른 임원은 명태 가격이 톤당 2,850 달러에서 3,050 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면서 계속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가 "저가 연육을 덤핑"하고 있다.

2022년 몇 분기 동안 명태 명란젓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작년에 러시아는 1만 8,000여톤의 명태 연육을 생산하여 16,000톤이 일본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기업의 신조선에서 어획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유럽연합에 판매하는 데 필요한 유럽연합 승인 번호가 거부되면서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 저가의 명태를 공급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5월 23일자

한국, 러시아산 명태 구매 대폭 감소

명태 수입 단가 22% 상승

2023년 4월 한국의 냉동 명태 수입량은 총 1만 2,640톤으로 지난해 동기 수입량인 5만 7,518톤보다 78% 감소하였다.

1~4 월 수입량은 6만 5,531톤으로 전년 14만 670 톤에서 53% 감소하였다.

러시아산 냉동 명태가 6만 4,214톤이 수입되어 전체의 98%를 차지했으며, 미국산 1,200톤, 캐

나다산 117톤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 수입 단가는 미국이 kg당 1.58달러로 가장 높았다. 러시아는 1.08달러 캐나다 1.21달러로 한국으로 수입 가격의 전체 평균은 1.31달러 지난해 1.08달러에 비해 22% 상승하였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17일자



러 수출 및 국내 시장 개발을 위한 전망

식량 위기 악화로 수산물 관심 증대

러시아 수산업은 세계 수산물 시장의 세분화와 수출 판매의 새로운 한계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 수산업은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기술, 운영, 인력 및 과학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공급 증가와 수출 잠재력 증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어업인들은 아시아 태평양 및 개발도상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산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국내 시장은 러시아 어업 발전의 우선순위 중 하나다. 매년 글로벌 수산 포럼 & 씨푸드 엑스포 러시아에서는 수산물 소비 및 마케팅, 수산업에 대한 인적 및 과학적 지원, 인프라에 대한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적으로 협력하여 심층 가공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고 최종 소비자에게 완제품을 배송하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항만 인프라이다. 항구 자체의 상태와 도로 및 철도 접근의 적시 현대화는 대량의 제품 환적 가능성을 결정한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18~24세 그룹의 응답자 중 33%만이 정기적으로 생선을 구매한다. 그래서 매년 포럼과 전시회 기간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비 습관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이벤트가 조직된다. 제조업체는 바로 조리하고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효과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사건은 러시아 어업 및 수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작년에 유럽으로의 직접 생선 수출은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러시아는 2022년 한 해 동안 60개국에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유럽으로의 수산물 수출은 명태, 대구 및 기타 흰살 생선에 대한 제한이 부과되기 전에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중국, 일본, 한국으로의 총수출량은 한 해 동안 1.25% 증가한 166만 7,000톤을 기록하였다. 아시아와의 교역이 지금과 같은 역동성을 회복한다면 이 시장은 러시아산 수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 어업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지만 수출 다변화는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

식량 위기가 악화하면서 러시아 수산물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중남미 시장은 자국 수산업과 양식업이 이들 국가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산물이 필요하다. 유럽 소비자들도 미국산과 품질은 같지만, 더 저렴한 러시아산 수산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가 가장 유망한 시장이다. 이미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수산물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인도, 베트남은 여전히 러시아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요는 엄청나므로 칭다오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주로 아시아 어업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씨푸드 엑스포 유라시아는 유럽,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12일자



러, 새 슈퍼 트롤어선 조업 시작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어선으로 연육, 어유, 어분도 생산

새로운 슈퍼 트롤어선 Mechanik Maslak이 현장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현재 정상 운항 중이다. 이 선박은 러시아 어업 회사의 투자 쿼터 메커니즘으로 건조되었다.

이 슈퍼 트롤 어선은 실제 운항 조건에서 새 선박의 어획 및 생산 장비의 효과와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거쳤다. 생산된 고품질 제품은 이미 러, 일본의 주요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슈퍼 트롤어선 Kapitan Vdovichenko와 마찬가지로 테스트는 거의 한 달 만에 완료되었다. 이 회사는 현재의 제재 조건 하에서 기술적으로 복잡한 선박으로 매우 좋은 결과물이라고 언급하였다.

메카닉 마슬락 슈퍼 트롤 어선은 러시아 어업 회사가 국가 어업 선단 개조 및 해양생물 자원 개발 강화

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건조한 두 번째 어선이다. ST-192 프로젝트 선박은 러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선박 중 하나이다. 오호츠크해와 베링해에서 명태와 청어를 독립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어획물 처리를 위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명태와 청어뿐만 아니라 다진 연육, 어유 및 어분도 생산할 수 있다.

이미 극동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슈퍼 트롤 어선 Vladimir Limanov와 Kapitan Vdovichenko는 올해 4월 9일까지 명태 어획량 평가에서 상위 3대 선박이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5월 25일자

러, 국가 어업 등록부, 완전 디지털화 예정

국가 디지털 혁신 목표 구현

러시아 농업부는 국가 어업 등록부 규칙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법령 초안은 regulation.gov.ru 포털에 게시되었다.

국가 어업 등록부에는 해양 생물 자원, 어업 수역에 대한 정보는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회사, 선박, 어구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현 규칙은 전자 및 종이 형식의 등록부를 제공하며, 이들 간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새 규칙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 매체에만 등록부를 보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새로운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부에 입력할 정보는 적격 등록된 사람의 전자 서명이 첨부 서한과 함께 파일로 러수산청에 보내야 한다.

등록 규칙 변경은 국가 디지털 혁신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18일자



대구, 가격이 저렴한 흰 살 생선과 경쟁

2023년 초 강한 수요로 가격 상승 이후 하락세

Nordea은행의 수석 수산물 분석가에 따르면 작년에 높은 가격으로 노르웨이 대구 어업의 총 어획 수입은 사상 최고치인 95억 NOK(8억 9,990만 달러)에 달했지만, 가격이 평준화되면서 2023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노르웨이의 대구 평균 가격은 작년보다 22% 높으며, 이는 바렌츠해의 쿼터가 20% 감소하여 시장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노르웨이 연안 대구에 대한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 부재로 인해 작년에는 신선 대구와 냉동 대구간의 가격 차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냉동 대구가 유리하였다. 그 이후 이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고, 신선

대구와 냉동 대구 모두 올해 2월 정점을 찍은 이후 가격이 감소하고 있다.

1kg에서 2.5kg 사이의 작은 대구는 35% 상승한 반면, 4kg에서 6kg 사이의 대구는 65% 상승하였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올해 4월 3억 8,500만 NOK(3,650만 달러) 상당의 신선 대구 6,993톤을 수출했다.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했지만, 금액은 8% 증가하였다.

또한 냉동 대구는 4월에 3억 2,300만 NOK(3,060만 달러) 상당의 5,456톤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수치이다. 신선 대구와 마찬가지로 4월 냉동 대구 어획량도 감소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5월 10일자

연해주 철송 어류 수출 선적, 연초 이후 2배 감소

전체적으로 수산물 수출 선적량은 22% 증가

2023년 4개월 동안 연해주에서 철송으로 수출된 수산물은 18,700톤이다. 지난해 동기간에는 5만 8,700톤의 어류가 수출을 위해 선적되었다.

이 경우 올해 지난달 연해주 역에서 중국으로의 1,600톤을 포함하여 수산물 선적량이 4천 톤에 달하였으며, 2022년 4월 1만 8,700톤의 어류가 중국으로 선적되었다.

2023년 초부터 연해주 농어업 검역국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포함하여 56만 톤 이상의 해양 생물

자원이 수출용으로 등록되었다. 전체적으로 수산물 수출 선적량은 22% 증가하였다.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러시아 어류 수입업자의 선두 자리는 중국으로 돌아왔다. 연초부터 30만 1,300톤의 수산물이 모든 운송 수단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되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수출량보다 2배 이상 많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23일자



日 '23년 2월 콩치 재고 6,554 톤

3월 대만산 콩치 수입 대폭 감소

일본 농림수산업성 통계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냉동 저장고의 2월 말 시점 냉동 콩치 재고는 6,564톤이다.

월간 입고량은 389톤으로 18% 감소하였으며, 월

간 출고량은 761톤으로 23% 감소하였다.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3월 대만산 콩치 수입량은 38톤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5월 25일자

〈 냉동 콩치 월말 재고량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	6,936	6,564	-	-	-	-	-	-	-	-	-	-
'22	7,003	6,526	5,730	5,668	5,296	5,006	5,388	3,866	4,182	4,947	6,676	6,867
'21	8,749	11,398	11,028	10,236	9,559	7,804	6,977	9,193	5,759	5,577	7,302	6,986
'20	14,228	12,950	11,891	10,601	9,902	7,893	7,270	6,900	6,089	6,994	8,987	9,248

북극 해양생물자원 회의 개최

전문가들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 유지가 중요

제1차 북극 해양생물자원 및 어업 회의의 일환으로 아르한겔스크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북극 지역의 해양생물자원, 어업 및 어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2021~2023년 북극이사회 러시아 연방 의장국의 행동 계획에 따라 개최되었다.

원탁회의의 사회는 러시아수산해양연구소(VNIRO) 연구 부국장이 맡았다.

무르만스크 지역 천연자원환경수산부 부국장 안드레이 알렉세예프는 백해에서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용 핑크 연어 어업의 발전 전망에 대해 발

표했고, VNIRO 북부 지부 부국장은 드비나 강, 페초라 강, 북부 드비나와 같은 러시아 북부의 큰 강 시스템에서 소하성 어종의 어획량에 대한 과거 통계를 제공했다. 그는 소하성 어종 어획의 현황과 문제점 및 이슈에 대해 발표하였다.

원탁 회의 참가자들은 취미 낚시 규제와 지역 주민의 이익 준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VNIRO의 극지방 연구소 책임자는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연어와 흑등 연어 어획량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5월 12일자



러, 북대서양 주요 어업 기구 탈퇴 엄포

중국 등 국가와 협력 가능성 밝혀

러시아연방 수산청장은 북대서양에서 가장 중요한 수산 자원 관리기구 중 하나인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가 점점 더 정치적 의제에 치우치고 있다며 탈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ICES는 작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이 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을 정지시켰다.

ICES 대표단은 모든 러시아 연방 대표, 회원 및 전문가들의 ICES 활동 참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의결하였다.

"북극은 말할 것도 없고 북대서양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많은 유럽연합 국가가 러시아연방의 과학 기구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다."라고 지난주 아르한겔스크에서 열린 북극 수산 자원 관련 회의에서 러시아연방 수산청장은 말하였다.

그는 러시아의 ICES 회원국 자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이 기구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산청장은 러시아가 완전한 회원 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이비 과학 단체를 떠날 것"이라고 ICES에 통보했다.

수산청장은 중국과의 협력을 예로 들며 "우리는 과학 연구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협력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ICES는 어족 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연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이 어획 할당량을 설정할 때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ICES는 바렌츠해와 발트해 어족 자원에 대한 조연을 제공하며, 이는 모든 주요 흰살 생선과 원양 어종의 쿼터에 대한 지침이 된다.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흰살 생선 어획 지역 중 하나인 바렌츠해에서 대구 쿼터를 설정할 때 ICES의 조연을 거의 보편적으로 채택하거나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ICES는 2022년 바렌츠해 대구와 대구 쿼터를 모두 20% 삭감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쿼터는 같은 양만큼 삭감되었다.

수산청장은 러시아가 과학적 의제에 따라 활동하는 수산 회원국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구 특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회원국들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어획할 권리가 있는 국가에 대해 특정 어장을 폐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에 대응하고 북극 중앙부의 상업적 어업을 폐쇄하기 위해 10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5월 15일자



냉동 수산물 시장, 2033년까지 2배 성장 예상

2033년 374억 달러 성장 예상

퓨처 마켓 인사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냉동 수산물 시장은 2023년 말까지 19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6.8%의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33년에는 374억 달러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9%의 성장률 대비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추세는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계속될 것이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사이 출생)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산물 섭취의 이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수산물 단백질은 일부 국가, 특히 전체 단백질 섭취량이 낮은 국가에서 식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필수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연어, 새우 및 조개류에는 특히 아연, 셀레늄 및 비타민 B1과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에이코사펜타엔산)와 DHA(도코사헥사엔산)의 공급원이기도 하다. 수산물은 높은 영양소 함량으로 인해 많은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된다.

수산물이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폐기량 감소, 활용도 향상, 유통 방법 개선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냉동 수산물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므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더 널리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신선 수산물보다 운송이 쉬우며,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냉동 기술의 발전으로 냉동 수산물의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가들은 현대 기술 덕분에 생선 맛이 신선할 때와 거의 같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2033년까지 미국의 냉동 수산물 산업 가치가 92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인도에서는 10년간 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중국의 냉동 수산물 산업은 그해까지 49.4%를 차지할 것이다.

선도적인 냉동 생선 생산업체들은 파트너십, 인수 합병, 새로운 제품 라인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음료 산업에서 혁신적인 레시피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도적인 냉동 수산물 제조업체는 기존 제품의 향상 및 수정된 제품 출시에도 집중하고 있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17일자



美 4월 수산물 소매 매출 감소

냉동 수산물 전년 대비 6.2% 감소

미국 슈퍼마켓의 수산물 소매 매출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4월에도 감소 추세였다.

미국의 4월 신선 수산물 매출액은 4억 8,050만 달러로, 전년 4월 대비 2.7%, 2021년 4월 대비 9.3% 감소하였다. 매출량(무게) 기준으로는 전년 4월 대비 2%, 2021년 4월 대비 18.4% 감소하였다.

4월 냉동 수산물 매출액은 5억 1,97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2021년 4월 대비 1.9% 감소하였다. 매출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4.2%, 2021년 4월 대비 8.6% 감소하였다.

참치 통조림 등 상온 보관 수산물의 4월 매출액은 2억 440만 달러(1억 8,85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2021년 4월보다는 11% 증가하였다. 매출량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2.5% 감소했으며 2021년 4월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4월 30일까지 52주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소매 수산물 매출의 지속적인 부진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 기간 동안 신선 수산물 매출량은 8.7% 감소했으며,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하면 22% 감소하였다.

냉동 및 냉장 수산물 매출도 52주 동안 감소하였으나, 신선 수산물 매출만큼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5월 18일자

러, 생선 소비 지난 5년간 1.6 배 감소

젊은 층 감소 추세 강해

전러시아 수산업 협회(AREA)와 협력하여 전러시아 여론 조사 센터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러시아인의 42%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선을 먹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5년 전(2018년 68%)에 비해 1.6배 감소한 수치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간 생선 소비율은 더 낮을 뿐만 아니라 5년 만에 2.5배(2018년 55%, 2019년 31%, 2023년 22%)로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생선 및 수산물을 구매하는 러시아인의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93%가 다양한 빈도로 생선 및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동시에 구매 빈도는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월간 생선 및 생선 제품 구매자의 비율이 81%에 달했지만, 현재는 75%이다. 러시아인의 4분의 1 이상(29%)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선 및 생선 제품을 구매한다고 설문 조사에 나와 있다.

식단에 생선을 포함하는 주요 동기는 건강상의 이점이다(생선을 먹는 사람들의 49%). 고등어(46%), 청어(46%), 핑크 연어(44%), 명태(40%), 송어(37%), 연어(35%), 청어류(31%)가 가장 자주 섭취하는 생선이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31일자



러, 지난해 우호 국가로 생선 수출 40% 증가

양식, 철송, 수출에 정부 지원 적용

작년에 러시아 생선 수출은 5%, 우호 국가로의 수출은 40% 증가하였다.

러시아 생선은 세계 시장에서 큰 수요가 있다.

농어업 수출 구조에서 수산물만은 공급량 측면에서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80개국으로 이동하며 이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많다.

이제 주요 임무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 수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농업부 장관은 말했다.

작년 총어획량은 490만 톤으로 연어 어획 실패로 인해 2021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양도 러시아 내에서 먹는 양의 1.5 배 이상이다. 올해 예상

어획량 5백만 톤이다.

어업은 일련의 국가 지원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작년에 주정부는 산업 프로그램에 약 120억 루블(1억 5천 달러)을 할당하였다. 이 기금은 무엇보다도 양식 개발을 위한 대출 비용을 상환하고 아조프해 수역에서 어업에 관련된 조직의 운영 비용 일부를 보상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극동에서 명태 제품 철도운송요금에 보조된다. 수출 지향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으며, 올해 104억 루블(1억 3천 달러)이 할당되었다.

* 출처: Rossiyskaya Gazeta, 2023년 6월 1일자



러 총리 “5월 초 러 인플레이션, 유럽 최저 수준”

곡물 및 생선에 대한 국내 수요 초과 충족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5월 초 2.3%로 둔화하여 모든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았다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5월 23일 화요일 상하이에서 열린 러시아-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말하였다.

러시아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3.5%에 불과하다. 5월 초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2.3%로 둔화하였다. 이는 모든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는 신용 기관, 외환 및 주식 시장이 국가 지불 및 결제 인프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제 러시아는 곡물, 설탕, 식물성 기름, 육류 및 생선에 대한 국내 수요를 초과하여 충족한다.”라고 러 총리는 말하였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4일자



후쿠시마 수산업계, 처리수 방출 평판 문제 대비

日 정부, 3억 5천만 달러의 지원금 제공 예정

일본 후쿠시마의 해산물 업체들은 손상된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이 가까워짐에 따라 잠재적인 평판 손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가동 중단된 원전을 소유한 도쿄전력 홀딩스는 해체 작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량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지역 어민과 일본 수협은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수산물 업계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Joban mono' 브랜드를 홍보해 왔다.

엄격한 방사능 검사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재해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

이 평판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500억 엔(3억 5,669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류가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쿄전력이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수산물 업계는 삼중수소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방사능 오염수는 처리 후 바닷물로 희석하여 방류된다. 삼중수소는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거의 없지만, 일본에는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5월 30일자

온난화로 일본의 어획량이 사상 최저치로 감소

극지방 혹은 더 깊은 바다로 이동

2022년 일본의 어획량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385만 톤으로 1956년 관련 데이터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구 온난화의 지속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적은 어획량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획도 어획량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대상 어종의 수를 4배로 늘릴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가 어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영국의 글래스고(Glasgow) 대학교에서 최근 수행한 연구에

서 확인되었으며, 전 세계 어류 개체군의 대부분이 극지방에 더 가까이 또는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어종은 더 따뜻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학의 일부 측면을 바꿀 수 있지만, 급격한 온도 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주뿐일 수 있다.

모든 주요 해양 지역의 115개 어종의 데이터를 조사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분석이 수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출처: Fishnet, 2023년 6월 2일자



페로 제도, 러시아 어선에 대한 제한 확대

연간 30~40만톤의 하역량 감소 예상

페로 제도 정부는 러시아 어선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양국 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이 페로 제도의 항구에 정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페로 제도 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응하여 2022년 5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승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선박의 페로 제도 내 항구 접근이 제한되었지만, 이 법안은 러시아 어선에는 특별히 적용되지 않았다. 이 제한은 당시 노르웨이가 시행한 제재와 유사하며 페로 제도, 노르웨이,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수산 문제에 대해 협력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 페로 제도는 2022년 11월에 체결된 페로 제도와 노르웨이 간의 양자 협정에 따른 어선만이 항

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항이 허용된 선박도 선원 교체, 병커링, 급유, 양륙, 환적 등 항구 내 활동에 제한받게 된다.

페로 제도는 "양국 간 합의에 따른 러시아 어선만 허용하면 러시아 선박의 활동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새로운 제한 조치 이전에는 노르웨이를 제외한 유럽에서 페로 제도는 러시아 선박의 정박을 허용하는 유일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연간 30만~40만 톤의 하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6월 2일자

러, EU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한 개정 예정

승인 기간 5 근무일로 단축

러연방농업부는 유럽 연합으로의 선적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연방 수산청의 구조에 의한 문서 승인에 대한 시간제한을 줄일 계획이다.

EU로 배송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제안된 수정안이 regulation.gov.ru 포털에 게시되었다. 인증서 취득 규칙은 2020년 6월 19일 농업부 명령 제335호에 의해 승인되었다.

인증서 승인 신청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도록 명령에 명시되어 있다.

"명령 초안은 또한 수생 생물 자원 어획 증명서 승인 기간을 14일에서 5 근무일로 단축하고 해양 생물 자원 어획 증명서 승인 거부 사유의 포괄적인 목록을 도입한다."라고 설명한다.

해양 생물 자원으로 만든 제품을 다른 국가로 배송하기 위해 인증서를 얻는 것도 디지털화 및 시간제한 단축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 출처: Fishnews, 2023년 6월 1일자



도브로플롯, 생선 통조림 구성·생산 공정 설명

천연 재료만 사용하여 제품 생산

최근 러 도브로플롯(Dobroflot) 그룹 담당자는 "생선 통조림에 방부제와 풍미 강화제를 첨가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대답은 "물론 아니다. 천연 재료만 사용한다."이다.

다음은 도브로플롯 그룹의 연안 및 육상 생산 시설에서 생선 통조림 생산 과정이다:

빈 캔을 꺼낸다. 그런 다음 제품을 뚜껑 아래에 단단히 병에 넣는다.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한다. 캔은

뚜껑으로 밀봉하고 오토클레이브(autoclave)에서 멸균한다. 각 캔은 120도에서 55분을 보낸다. 이 살균 기술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선의 최대 유용한 특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준비된 생선 통조림은 12일동안 숙성되어 소금과 향신료가 고르게 분포하여 더 맛있게 된다. 이제 캔을 열기만 하면 바다의 모든 이점을 만끽할 수 있다.

* 출처: Finshnet, 2023년 5월 23일자

폴라 씨푸드, 러 자회사 매각 후 820만 달러 손실

이후 아이슬란드기업이 50% 인수 완료

폴라 씨푸드 덴마크는 러시아에서 조업을 중단한 후 수익에 5,700만 DKK(820만 달러)의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그린란드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Polar Seafood社は 지난해 8월 러시아 자회사의 매각을 완료했다고 하였다. 매각은 2022년 2월 24일 이루어졌다.

자회사의 공동 소유주이자 이사인 Konstantin Kuznetsov-Serbskij에게 75%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폴라 씨푸드와 파트너 관계를 맺

어왔으며, 현재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폴라 측은 확인했습니다.

폴라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말부터 러시아 지사 매각을 시도해왔으며, 8월에 마침내 서류에 서명하였다.

손익 계산서에서 러시아 사업은 "중단된 활동"으로 표시되어 5,700만 DKK의 손실로 기록되었다.

올해 4월, 아이슬란드 대기업 Brim은 폴라 씨푸드 덴마크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5월 26일자



바다9

정 지 용

바다는 뽀뽀이
달아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재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상처기!

가까스루 몰아다 부치구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켰다.

이 엘쎄 해도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희동그란히 바쳐 들었다!
지구는 연뉘인 양 움으라들고..... 펴고.....





5월 오징어 국내 동향

원양산 반입 줄어 생산량 감소, 소비자가격 상승세 지속

□ **생산동향**(5월 오징어 생산량, 원양산 반입량 줄며 전월 대비 4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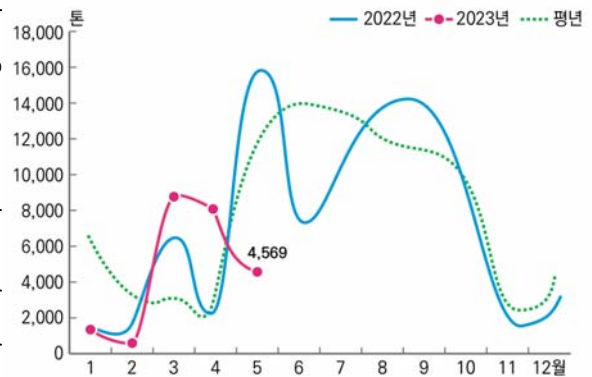
5월 오징어 생산량은 4,569톤으로 전월 대비 42.9%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각각 70.8%, 60.3% 적었다.

연근해산은 925톤으로, 근해채낚기어업 등 일부 어업의 조업이 재개되며 전월 대비 생산량이 늘었으나 작년보다는 적었다.

어장은 동해 중남부해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근해채낚기어업 위주의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평년 대비 어황이 부진하였다.

원양산 반입량은 3,644톤으로 전월 대비 54.3%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75.0%, 65.6% 적었다.

어황이 좋았던 어기 초반(2022.12.~2023.2.)에 어획된 물량이 반입된 3, 4월에는 물량이 많았으나, 3월 이후 생산이 부진하여 5월 반입량은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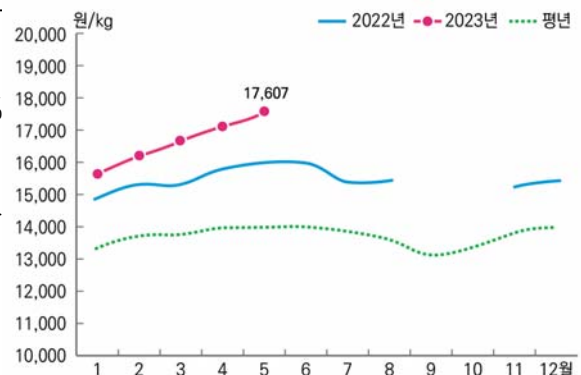
□ **가격동향**(5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3% 상승한 kg당 17,607원으로 상승세 지속)

5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전월 대비 31.6% 상승한 kg당 5,682원이었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공급 감소로 전월 대비 9.8% 상승한 kg당 11,241원이었다.

소비자가격도 전월 대비 3.2% 상승한 kg당 17,607원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5월에 어획된 오징어는 대부분 소형어였으며, 기준 크기 이상의 오징어는 유통물량이 적어 신선냉장품의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 수출입동향(5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 대비 감소, 수입량은 증가)

5월 오징어 수출량은 1,960톤으로 전월 대비 35.5% 감소했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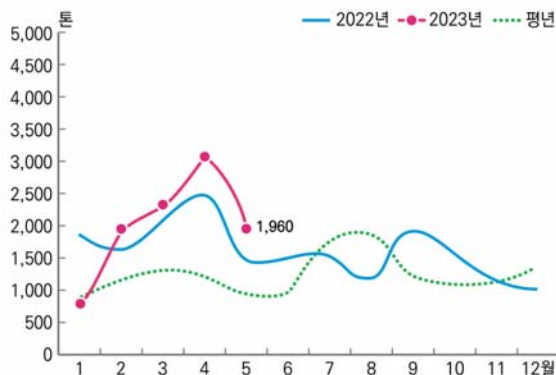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1,044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국(368톤), 베트남(213톤)의 순이었다.

5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13.3% 증가한 3만 324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59.9%, 37.4%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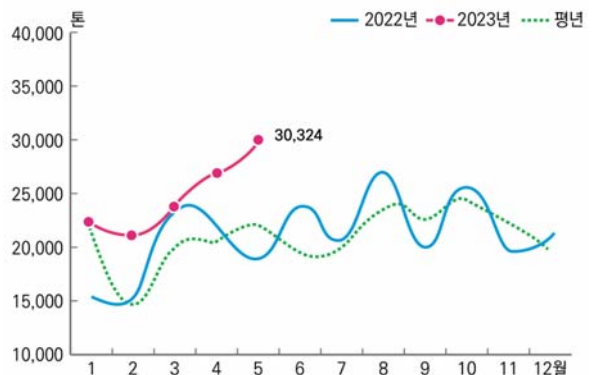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1만 7,156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9,817톤, 칠레산 1,416톤 등의 순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 1만 3,678톤, 기타 1만 7,055톤이었으며, 기타는 대부분 '조제 또는 저장처리' 제품(14,191톤)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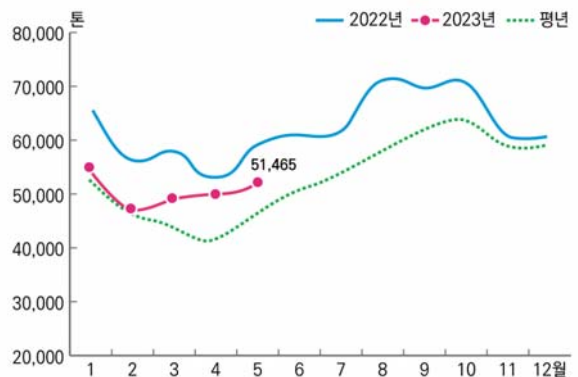


□ 재고동향(5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4% 증가한 5만 1,465톤)

5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5만 1,465톤으로 전월 대비 4.1% 증가하였다. 이는 원양산 반입량 감소에도 수입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6월에는 연근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원양산 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고량은 5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KMI 수산물측 4월호





5월 명태 국내 동향

휴어기로 생산 없었으며, 소비자가격 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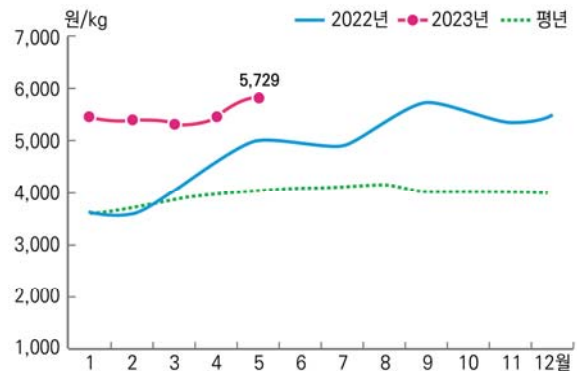
□ **가격동향**(5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kg당 5,729원으로 전월 대비 4% 상승)

5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558원으로 전월보다 1.7% 상승하였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7.0% 낮았으나, 평년 대비 13.4% 높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729원으로 전월에 비해 4.4% 상승하였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15.5%, 40.8%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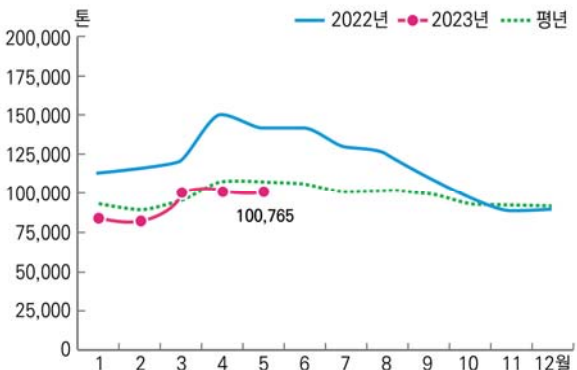


□ **재고동향**(5월 재고량, 전월 대비 소폭 감소)

5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10만 765톤으로 A시즌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나 지난 어기 생산이 부진했던 주요 소비 크기 명태 재고가 소진되며 전월(102,108톤) 보다 1.3% 감소하였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28.6%, 5.7% 적었다.

명태 A시즌이 종료됨에 따라 B시즌 어획물의 수입 및 반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재고량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입동향(5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3% 증가한 2만 6,180톤)

5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2,379톤)보다 70.9% 증가한 4,066톤이었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84.8%, 36.0% 적었음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중국으로 냉동필렛이 1,36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으로 냉동명태(884톤), 중국으로 냉동명태(425톤) 및 냉동연육(418톤) 등의 순이었음

5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2만 683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9.8%, 22.7%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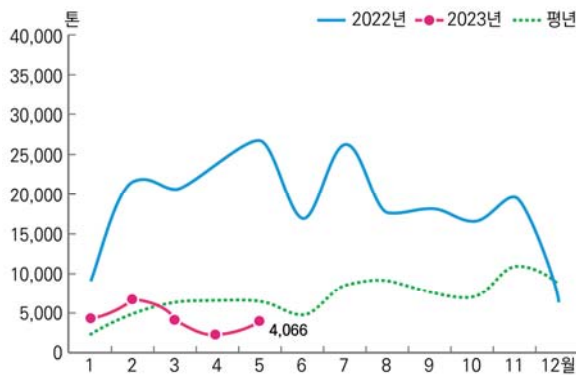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2만 6,180톤으로 전월(25,536톤) 대비 2.5% 증가했음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49.6%, 24.0%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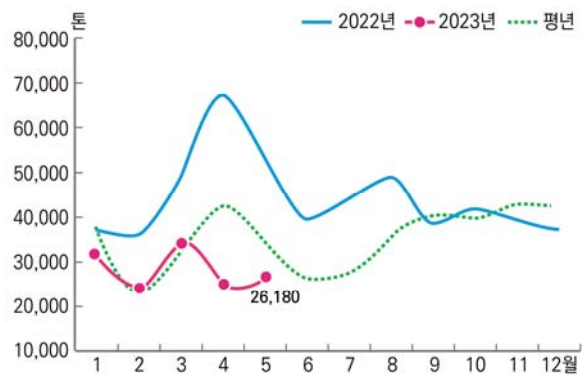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산 냉동명태(9,176톤)와 냉동필렛(5,797톤), 미국산 냉동연육(5,618톤), 러시아산 건조명태(2,278톤) 등의 순이었음

5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4만 856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2.1%, 16.7% 적었음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물측 6월호



방사능오염 선박평형수, 신속 검사로 유입 차단

이동형 방사능 측정기 활용 조사 시범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2일(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원전사고 후부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이 중, 원전사고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전수조사하였다. 그간 조사된 해당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

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6개 현으로 확대하고,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6대)를 배치하여 입항과 동시에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며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만별로 일본 6개 현을 기항하는 해운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화된 조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하여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IOTC 총회 의장에 해수부 김정례 팀장 재선출

우리나라 대표단, 인도양참치위원회에서 제안서 제출 등 의제 선도

해양수산부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27차 총회(5. 8.~12. 모리셔스)’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팀장(Head of Fisheries Negotiation Unit)이 총회 의장에 재선출(‘23~’25)되었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제2의 참치

어장인 인도양을 관리하는 인도양참치위원회의 의장에 연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면서, “인도양참치위원회에서 국제수산규범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 열려

신(新)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 표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31일(수) 오전 10시 10분부터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백결공연장에서 ‘혁신 해양산업, 도약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우리 바다가 가지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해양수산 종사자와 지역주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하여 바다의 날을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첨단 해양모빌리티산업 선점,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등 신(新)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해 온 종사자 4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해군 군악대와 경주시립합창단, 바다동요대회 수상팀의 축하 공연 등 볼거리도 마련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바다의 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 바다의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정부도 소중한 우리 바다를 지키고, 가꾸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여 신(新)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어류 보존 위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개최 불법어업 감시·과학연구 성과 발표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의 제30차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는 공해에서의 연어류 어획을 금지하며, 각 회원국은 검색선 및 항공기 등을 활용해 연어류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항만국 조치 협정’에 따라 검색을 실시하여 연어류의 불법어획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어류 관련 과학연구 및 불법어업 감시활동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각국의 불법어업 감독관·검색관, 연어 과학자 등 국내외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연어류 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관련 과학연구와 불법어업 감시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극의 꽃, 기후변화로 병들다

남극 식물 곰팡이에 감염되어 병든 사례를 세계 최초로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현화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되어 병든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문제의 곰팡이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가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점차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해당 개체의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곰팡이(내생균)이었지만, 최근 남극이 20도를 넘는 등 이상고온을 보이면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병원균)로 활성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은 지난 50년간(1959~2009) 연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의 곰팡이가 병원균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극지연구소의 주요 사업인 ‘온난화로 인한 극지 서식환경 변화와 생물적응진화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곰팡이 유전체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Plant Disease> 4월호에 실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현장 관측을 수행한 우리나라 연구팀의 노고 덕에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남극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 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많이 겪어 어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검진과 질환 예방 활동 확대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일/1년 이상 휴업)은 평균 5.8%로 전년보다 0.2%p 증가하였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6.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손·손목이 19.1%, 허리가 19.0%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힘이나 중량물 취급(22.7%)이 꼽혔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일/1년

이상 휴업)은 평균 2.4%로 전년보다 0.5%p 감소하였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71.5%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상, 갯벌 등 특수한 작업환경에 있는 어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업안전보건센터 등을 통한 정기 건강검진과 질환 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어한기 물가안정용 정부 비축수산물 즉시 공급 정부 비축수산물 4,772톤, 최대 30~4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한기(漁閑期) 물가 안정을 위해 5월 26일(금)부터 6월 18일(일)까지 24일 동안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4,772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번 방출 품목은 가격이 올랐거나, 생산 등 수급이 다소 불안정한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4개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명태 3,647톤, 고등어 70톤, 오징어 700톤, 참조기 355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시중 도매가격보다 최대 30%~40% 할인하여 판매한

다. 아울러, 중소·영세 가공업체 등을 위해 도매시장, 기업간 거래(B2B)로 판매처도 확대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5~6월은 금·휴어기로 수산물 수급이 감소하는 어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지속 및 물가안정을 위해 매년 정기 방출을 실시해 왔다.”라며, “수산물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거나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니기에, 가격 상승품목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조업이 재개되기 전까지 수산물 가격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태도국에 재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대통령 특사신분으로 통가, 피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 방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통가, 피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사업을 논의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특사신분으로 대상국들을 방문하게 된다. 먼저, 통가에서는 지난해 피지 방문 시 면담했던 통가의 시아오시 소발레니(Siaosi Sovaleni) 총리를 다시 만나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피지에서는 지난해 총선으로 정부가 교체된 피지 부총리와 수산산림부 장관을 새롭게 만나 ‘한-피지 해양수산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은 통가, 피지에 해사분야 인적역량 강

화, 수산분야 최고위급 특별정책 연수 등 2024년에 추진할 새로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개최될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양국 총리의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방문하는 뉴질랜드에서는 남극 분야 협력과 더불어, 태평양 도서국 지원정책 정보 등을 양국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다시 한 번 만나게 된 태평양 도서국 정상과 각료분들에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등 성공경험을 공유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차관, 원양산 수산물 수출업계와 소통 안정적인 원양 생산기반 확보와 국제규범 대응 방안 등 논의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5일(월) 15시 30분 서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원양산 수산물 수출업체 7개사와 함께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핵심 품목인 참치와 이빨고기 등 원양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기반 확대 방안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조업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원양수산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형성 상황과 국제 조업 규제에 따라 생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다”라며, “해외 어장과 공해(公海)에서의 조업 물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강화되고 있는 국제 조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규정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대리)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 장	589-1604	총 괄
		공길웅 과 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 장	589-1606	서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 사	589-1603	총괄(겸직)
		조성주 과 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주 임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 장	589-1610	총 괄
		김영수 과 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주 임	589-1619	노사, 선원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 무	589-1602	총괄(겸직)
		최봉준 과 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 임	589-1614	참치선망
		정윤경 사 원	589-1615	참치연승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 장	589-1616	총 괄
		최상진 주 임	589-1617	오징어, 기타트롤
이승환 사 원	589-1618	복양, 품치		
부산지부	공인계량소	이성재 이 사	051-253-3388	총 괄
		김현애 과 장		확인업무(수출,반입)
		이동주 팀 장	051-253-3391	차량계량
		최광준 팀 장		차량계량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센터장실	이상묵 센터장	044-868-7360	총 괄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 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인사, 예산, 명예수산물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해외진출팀	이 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통계, OFIS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해외수산물협력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3	일본/지역수산물기구

■ 홈페이지: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02-589-1630/1, (부산지부):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력센터):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수산물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수산물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	64-3-344-1617 seajho@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창원 자문위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자문위원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58호

발행: 2023년 6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간별: 월간

발행처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홍조림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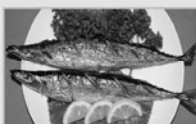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저수용 생선으로 저적



곰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